청년예술청 Seoul Artists' Platform New&Young

SAPY

2023 08 VOL.198

2023 08 VOL.1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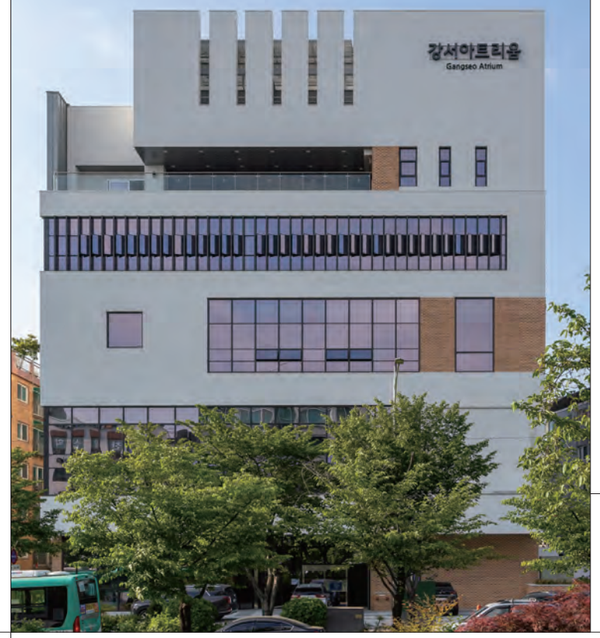
서울문화재단
Seoul Foundation for Arts and Culture

서울시 자치구 소식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은 매월 1회, 점심시간을 활용해 일상으로 찾아가는 〈런치타임 콘서트〉를 연다. 광화문광장과 면해 있어 접근성이 좋고 울림이 적당한 세종아운지에서 서울시합창단원이 독창·중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등 노래를 선사한다. 8월 18일, 9월 15일, 10월 13일, 11월 17일, 12월 1일 금요일 오후 12시 20분부터 50분까지 30분간 진행된다. 누구나 관람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 시민의 신청곡을 받아 연주하는 이색 이벤트도 열린다.

중랑구
중랑상봉도서관은 올해 상주작가로 선정된 극작가 박지선과 함께하는 신중년 희곡 낭독발표회 〈낭랑60세, 함세덕과 극적 상봉〉을 개최한다. 60대 이상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이번 행사는 망우역사문화공원에 안장된 극작가 함세덕의 '동승'을 함께 읽고, 인물과 배경 등 작품을 분석한 뒤 연기 연습을 거쳐 가을밤 지역주민을 초대해 낭독극을 펼치는 자리다.

강서구
강서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전문 공간 강서아트리움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카페, 가변형 갤러리, 고품질의 음향을 갖춘 215석 규모의 공연장과 무용·음악 연습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로 구성됐다. 앞으로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기획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 갈증을 채울 예정이다.



도봉구
둘리뮤지엄이 '찾아가는 박물관' 사업으로 8월 16일 도봉구민회관에서 온 가족을 위한 행사를 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과 야외광장에서 개최하며, 도봉구에 거주하는 5세 이상 어린이를 둔 가족과 단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영화 〈아기공룡 둘리: 얼음별의 대모험〉 상영, 둘리와 친구들 캐릭터 싱어롱쇼, 체험부스 등을 운영하며, 둘리뮤지엄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노원구
공릉동 화랑대철도공원 내에 위치한 경춘선숲길갤러리에서 8월 13일까지 《바다와 요나, 그리고 너의 시간》이 열린다. '요나'라는 고래의 영혼과 함께 해양 오염 문제를 바다의 시각에서 재조명해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체험 전시로, 지구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며 건강한 창작을 지향하는 콜렉티브 그룹 지구숨숨에서 기획했다. 8월 5일에는 부대 행사로 환경음악회도 준비됐다.

서초구
주말에 즐길 문화생활을 고민하는 가족 또는 연인이라면 예술의전당 인근에서 열리는 '클래식 다방'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클래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즐기다'라는 뜻을 담은 행사로, 문화예술인에게는 공연 기회, 소공연장에는 운영 활성화 방안, 구민에게는 부담 없는 공연 관람을 제안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또는 서초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연

뮤지컬 〈프리다〉
화려하고 강렬한 색채로 잘 알려진 멕시코 화가 프리다 칼로의 생애를 다룬 창작뮤지컬 〈프리다〉가 지난해 초연에 이어 재공연을 올린다. 비극적인 사고로 평생 신체·정신적 아픔을 안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예술적 치유를 이뤄낸 그의 삶 말기를 콘서트 형식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올해는 폭발적 가창력을 자랑하는 김소향, 독특한 음색의 알리, 최근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깊은 인상을 남긴 김히어라가 주인공으로 발탁됐다.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에서 초연해 회를 거듭하며 완성도를 높여가는 작품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10월12일까지 | 코엑스 신한카드 아티움 | 02.6391.6333

©EMK뮤지컬컴퍼니

인터내셔널 기타 마스터즈
오늘날 세계 곳곳을 누비며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클래식 기타계 별들이 모여 기타예술의 극치를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한다. 다수의 국제 콩쿠르 우승 경력을 자랑하는 마르신 딜라와 박규희를 주축으로 쿠핀스키 듀오, 솔리스트로 눈부신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박종호·박지형·곽진규 등 출연진이 듀오·트리오·콰르텟 등 다채로운 구성의 음악을 준비했다.
8월18일부터20일까지 | 금호아트홀 연세 070.7579.3660

연극 〈어느날 체흡 단편〉
2020년 창단한 동인제 극단 '어느날'은 안톤 체호프의 단편소설에 집중해 영웅적인 거대 서사에 지워진 노인·여성·아이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을 예외적으로 살펴본다. 단지 연약하다는 이유로 하찮은 존재처럼 여겨진 이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회복하는 것이 공연예술의 존재 가치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으며, 극장을 찾는 관객에게 드라마의 가치를 온전히 전달하려 노력한다. 2023 여름체흡축전 참가작이다.
8월10일부터13일까지 | 안똔체흡극장 1544.1555

〈캔터빌의 유령〉
오스카 와일드가 쓴 코미디 공포 소설을 바탕으로 탄생한 어린이 뮤지컬 〈캔터빌의 유령〉이 무대에 오른다. 3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겁주던 유령이 사는 캔터빌 저택에 이사 오게 된 오티스 가족의 한판 대결이 펼쳐진다.
8월5일 오전11시와 오후2시 | 금나래아트홀 | 070.8831.53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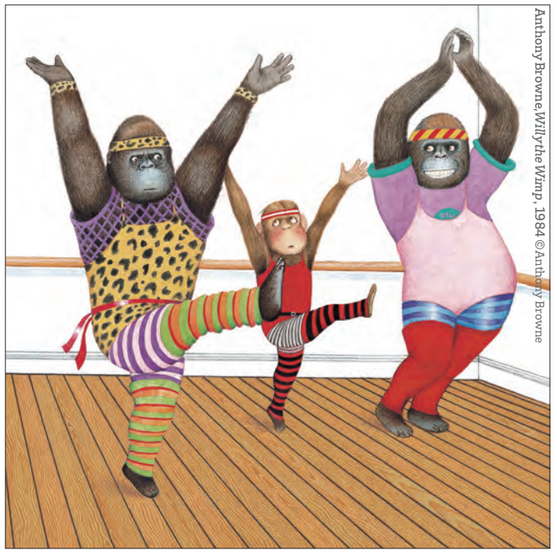
〈클럽M-French Night〉
마포아트센터 'M 소나타 시리즈' 8월 공연의 주인공은 클럽M. 개별 연주자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한 실내악단으로, 2017년 결성 이래 꾸준히 화제를 모아왔다. 뛰어난 연주 실력은 물론,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위해 도전하는 모습과 음악을 나누는 동년배 연주자들의 순수한 즐거움이 관객에게도 신선하게 다가간 것. 이번 무대에서는 낭만 시대와 현대를 넘나드는 프랑스 음악가들의 걸작을 들려준다.
8월29일 오후8시 |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02.3274.8600

서울시뮤지컬단 〈알로하, 나의 엄마들〉
이금이 작가의 동명 소설을 토대로 한 창작뮤지컬 〈알로하, 나의 엄마들〉이 한 달여 장기 공연을 진행한다. 사진 한 장에 운명을 걸고 하와이로 떠난 열여덟 살 주인공과 여성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낯선 땅에서 힘겹게 뿌리내리며 살아간 디아스포라를 상기하며 강한 생명력을 가진 엄마들의 사랑과 연대를 그려낸다.
8월19일까지 |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02.399.1000

전시

《My Dear 피노키오》
잘 알려진 고전 '피노키오의 모험'을 입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찾아온다. 세계 유명 작가에 의해 재창조된 피노키오를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회화와 조형물 등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의 피노키오 만들기'와 같은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피노키오 탄생 140주년을 맞은 올해, 나루아트센터에서 피노키오의 진짜 이야기를 만나보는 것은 어떨까?
8월17일까지 | 나루아트센터 전시실 02.2049.4700

《공동의 자아: 우리가 도시를 기억하는 법》
올여름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는 세계 여러 나라 작가의 작품으로 가득 찰 예정이다. 한국·대만·태국·형가리·미국 등 다양한 문화권의 작가가 참여해 도시, 즉 새로운 집단 기억의 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담았다.
8월5일부터9월1일까지 | 서리풀청년아트갤러리 | 02.3477.2074



《앤서니 브라운의 원더랜드 뮤지엄》
방학을 맞이한 어린이들을 위해 세계적인 동화 작가 앤서니 브라운의 원화를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세상과의 소통'을 콘셉트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상상의 공간 '원더랜드 뮤지엄'에서 작가의 작품 150여 점과 만나는 특별한 순간을 제공한다. 전시뿐만 아니라 연계 프로그램으로 나만의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어린이 도슨트 투어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10월15일까지 | 꿈의숲아트센터 상상톡톡미술관 | 02.399.1000

《한양 여성, 문 밖을 나서다–일하는 여성들》
규문 안부터 도성 안팎을 오가며 활동한 조선 시대 여성의 일과 삶은 어떠했을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국가 체제 안정에 이바지하면서도, 사회가 강요하는 유교적 여성관에 매몰되지 않은 여성들. 이들로 하여금 더욱 활기찬 삶의 공간이 된 도시 공간의 풍경을 살펴본다. 전시는 한양 여성의 활동 공간에 따라 1부 '규문 안에서', 2부 '도성 안에서 일하다', 3부 '도성 밖, 염원하다'로 구성된다.
10월3일까지 | 서울역사박물관 기획전시실 A 02.724.0274

《헤더윅 스튜디오: 감성을 빚다》
세계적인 건축가이자 디자이너 토머스 헤더윅의 대표작을 만날 기회. 뉴욕 리틀 아일랜드, 캘리포니아 구글 베이 뷰, 서울 노들섬 프로젝트 등 작가가 1994년 설립한 헤더윅 스튜디오의 대표 디자인 작품 30점을 모았다. 전시는 작품만 아니라 프로젝트의 탄생 배경과 과정, 작품의 영향력 등 디자인과 건축과 관련한 다방면의 아이디어를 두루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작가가 바라본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의 모습과 기능이 궁금하다면 놓치지 말 것. 매주 금요일에는 오후 10시까지 야간 개장한다.
9월6일까지 | 문화역서울284 | 02.3789.5022

축제/행사

플레이업 아카데미
배우·연출가·극작가를 위한 서울연극센터 연극인 재교육 프로그램 플레이업 아카데미에서 수강생을 모집한다. 안무가 정영두의 '심화과정–텍스트와 움직임'과 배우 김신록의 '무엇을 보게 할 것인가'는 8월 9일까지, 연출가 구자혜의 '연출의 기술적 사유를 위하여'는 2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과정별 자세한 내용은 서울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교육 참가비는 무료.

제8회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동시대 장애인 무용예술가와 공연예술가의 초국가적 협업을 시도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모두가 즐기는 무대를 조성하는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가 열린다. 올여름 9일에 걸쳐 모두를 위한 무용 플랫폼으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춤으로 함께 행복한 순간을 만들 예정. 경기도무용단과 장애무용수들이 함께하는 개막작 〈메타프리즘〉을 시작으로 국내 기획작 5편, 국내 공모작 7편, 해외 초청작 7편을 선보인다. 아르코예술극장과 이음센터 등에서 열리며, 워크숍(15일)·국제 포럼(21일)·댄스필름 상영회(23일) 등 부대 행사도 준비됐다.

서울프린지페스티벌 2023
서울을 대표하는 독립예술 축제 서울프린지페스티벌이 올해 26회를 맞아 8월 8일부터 27일까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 실내외 공간에서 열린다. 선정과 심사 없이 참가 신청을 마친 96팀의 예술가가 연극·무용·음악·시각예술·퍼포먼스 등 장르에 구애받지 않는 예술적 실험을 선보인다.
올해 축제 슬로건은 '모두를 초대합니다'. 사회와 예술이 좀 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 맺을 수 있는 축제를 지향한다. 특히 관객 누구나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였다. 대부분 작품에 관람 연령 제한을 두지 않으며, 배리어프리 정보를 제공한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기 위한 다채로운 기획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친환경 예술축제 만들기 '에코프린지', 모두에게 열려 있는 축제 만들기 '배리어프린지', 독립예술집담회 13th with 독립예술웹진 인디언밥 '시대에게 쫓겨나기', 예술가 동료들의 피드백 품앗이 '오픈리허설' 등 공연과 공연 사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것 역시 축제의 묘미가 될 것이다.

서울축제지도-여름 편
올여름 일상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서울에서 열리는 문화예술 축제를 소개하는 서울축제지도 여름 편(6~9월)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예술공연·문화관광·전통역사 등 3개 카테고리로 나눠 33편 축제를 소개한다. 링크를 통해 전자책 형식으로 열람하거나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콘텐츠

책읽아웃
인터넷서점 예스24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는 도서 팟캐스트. 매주 목요일 저자가 함께하는 인터뷰 코너 '황정은의 야심한책'과 금요일 책읽아웃 크루가 함께하는 책 리뷰 '오은의 옹기종기'가 격주로 방송된다.

서울공예박물관 온라인 전시
소문이 자자했던 지난 전시를 다시 보고 싶다면? 서울공예박물관은 전시실을 VR로 촬영해 온라인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평면도 혹은 VR을 선택해 원하는 시야로 감상할 수 있으며, '나만의 세모카'(아바타)를 만들어 전시를 가상 체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상설전시와 기획전시 《사유하는 공예가 유리지》, 《衣·表·藝, 입고 꾸미기 위한 공예》를 관람할 수 있다.

Scene

이달, 주목할 서울의 문화예술 소식

02
서울시 자치구 소식

03
공연

04
전시

05
축제/행사

06
온라인 콘텐츠

Focus

문화예술과 ESG가 만나면

10
인트로
창작의 주제이자 주체로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

12
E, 기후 변화에 행동하며
예술에서 발견한 회복의 실마리
친환경에서 '필환경'으로

16
S, 사회를 바꾸는 힘
1 × 1 = ∞
서울문화재단, 기업과 손잡다

21
G, 모두를 위한 거버넌스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울타리
청년예술청 거버넌스를 말하다

Associated

26
예술가의 진심
휘둘리지 않는 진솔의 지휘봉

34
페이퍼로그
극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공연기획팀 최영한

36
문화+후원
미디어아트의 가치와 가능성을 송출하다
WTC Seoul의 매체 후원

38
인사이드
화려함 이면의 소리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3

42
인사이드
불철주야 예술 창작의 성지
금천예술공장 14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43
인사이드
무더운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쿼드 여름페스타

46
예술단체 아카이브
예술하는아이다
아하콜렉티브

48
트렌드
'단호한 지휘자' 에버 6의
국립국악관현악단 데뷔기

50
해외는 지금
예술가가 수집한 예술

Column

54
삶의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56
동시대적 고전 읽기
무대에 펼쳐지는 '보편의 세계'

58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보고 싶은 얼굴

60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가장 애틋했던 그 여름으로

62
컨트리뷰터

서울문화재단 [문화+서울]
발행인 이창기 편집 총괄 이주영 기획·편집 연재인 편집위원 전민정 사진 (재)서울문화재단 편집·디자인 designikki 인쇄·제책 더프레스(주)
발행처 (재)서울문화재단 A. 서울시 동대문구 청계천로 517 T. 02.3290.7124 F. 02.6008.7347 W. www.sfac.or.kr
ISSN 1739-774X 웹진 www.sfac.or.kr/magazine 등록번호 동대문, 라00036 발행일 2023년 7월 31일
서울문화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지 [문화+서울]은 서울에 숨어 있는 문화 욕구와 정보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예술가의 창조적 힘과 시민의 일상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문화+서울]에 실린 글과 사진은 (재)서울문화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는 모두 필자 개인의 의견을 따른 것입니다.
[문화+서울]은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독자를 위해 데이지(DAISY) 파일을 제공합니다.

문화예술과 ESG가 만나면

기업과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사회 영향력을
측정하는 척도를 일컫는
ESG가 경영 평가 기준을 넘어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문화예술은
ESG를 실천하기 위한
수단 혹은 매개의 위치를 넘어
실천 주체로 발돋움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시대와
발맞춰 걷고 있다.

장한나, 〈뉴 락 표본 2017~2021〉
'뉴 락'은 자연의 일부가 된 플라스틱을 일컫는 말이다.
자연의 일부가 됐으나 영원히 썩지 않는 작품을 보며
시각적 즐거움을 발견하는 한편,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에 빠져들게 된다. 사진 제공 인천아트플랫폼

창작의 주제이자 주체로서

지속 가능성을 위한 ESG 경영

'문화예술계는 왜 ESG 경영을 해야 하는가?' 투자 관점이 부각되는 ESG 경영을 문화예술 주제와 주체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현대미술의 보고'라 불리는 제18회 베니스 비엔날레 건축전Mostra Internazionale di Architettura이 지난 5월 개막했다. 올해 주제는 '미래의 실험실The Laboratory of Future'로, 환경 위기, 기후 재난을 맞이한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 2022년 9월 개최된 카셀 도쿠멘타documenta 15의 주제도 '지속 가능성'. 그간 국제 행사에서 주목받지 못한 제3국 기반의 창작 그룹이 다수 초청됐으며, 개최 이래 최초로 아시아 출신의 작가 그룹 루앙루파ruangrupa를 전시 감독으로 선정했다.

지속 가능성은 문화예술의 창작에서 이미 주요한 주제로 자리잡았다. 이러한 창작 경향을 반영하듯 영국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는 4대 투자 원칙의 하나로 '환경 책임성Environmental Responsibility'을 포함했고, 독일 연방문화미디어청Bundesregierung für Kultur und Medien은 2022년 예산안에 '문화와 기후Kultur und Klima'를 신설해 지속 가능 전환을 지원하는 등 주요 기관에서는 지속 가능성을 주요 어젠다로 인식하고 문화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국내 문화예술계 또한 지속 가능성을 미래 트렌드로 주목하고 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차민경, 2022-2024년 10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1)에 따르면, 환경 문제는 문화예술 창작의 주요 주제로 등극할 것(73.1%)이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은 전 분야·부처에 걸쳐 중요한 이슈로 등극할 것(76.9%)으로 전망했다.

↑ 지난 5월 개막한 베니스비엔날레 건축전 한국관 전시 《2086 : 우리는 어떻게?》에 설치된 아워레이보 〈2086: Together How?〉는 TV 퀴즈쇼 형식을 차용해 개개인의 생활 속 결정이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계는 ESG 경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그러나 지속 가능성이 문화예술계에서는 친숙한 개념일지 몰라도, ESG 경영은 다르게 인식되는 것 같다. 민간에서 촉발해 투자 관점이 부각되는 ESG 경영은 마치 새롭게 등장한 경영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사실 이전에 없던 맥락은 아니다.

ESG 이전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공유가치창출CSV,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 개념과 관점이 있었다. 이들은 모두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며, 차이를 구분한다면 ESG 경영에 '의무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됐다는 데 있다. ESG 경영의 주요 활동 중 하나가 ESG 리스크 관리인 것도 그 때문이다. ESG 리스크 관리는 기업의 경영활동 중 E/S/G 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행위인데, 기업이 사회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리스크로 간주한다는 의미다.

이는 문화예술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으로 생각한다. 즉 문화예술계의 ESG 경영은 민간의 투자 관점을 떠나, 문화예술 창작의 주제로서 ESG가 다뤄질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주체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이 강조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본다. 실제로 문화예술계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수행한 조사(신상욱,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인식과 미래수요 조사 연구, 2021)에 따르면, 예술가들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정책 참여 의향은 72%에 달하며, 참여 이유로 기후 위기에 대한 윤리적·도덕적 책임(64.7%)을 가장 많이 답변했다. 안전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연예술가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모임인 한국공연예술자치규약KTS과, 건강한 예술 생태계를 지향하는 무용인 연대인 '무용인희망연대 오롯'도 그 예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기관의 ESG 경영을 고민하며

문화예술계 주체로서 문화예술기관도 사회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필자는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로서 '문화예술기관이 왜 ESG 경영을 해야 하는가?', '비상업적 영역에 있는 문화예술기관이 ESG 경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같은 물음에 끊임없이 부딪혔다. 이러한 고민은 문화예술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ESG 담당 실무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일 테다.

필자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2022년 하반기에 문화예술기관 ESG 워킹그룹을 기획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ESG 과제를 발굴하고,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지향할 ESG 경영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데 목적이 있다. 16개 지역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실무자가 모여 5개월 동안 ESG 개념에 대해 학습했으며, 각 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 과제를 도출해 문화예술기관 ESG 경영의 맥락을 찾아봤다.

실천 과제로 도출된 것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ESG 관점에서의 기관 운영이다. 이해관계자에게 요구하기 전에, 문화예술기관에서 먼저 사회적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화예술시설(공연장·미술관 등)을 보유한 기관은 탄소 배출 저감에 있어 적극적 역할 수행이 요구되고 있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계의 ESG 실천 도모다. 문화예술계 주체들은 ESG를 이미 창작의 주제로 활용하거나 사회 변화를 주도해나가는 직접적인 생산자의 위치에 있다. 그래서 창작 과정에서의 ESG 실천 도모는 규제보다는 협력·지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논의가 오갔다. 또한 예술을 커뮤니케이션과 인식 개선의 수단으로 보고 그 역할 강화에 힘써야 한다는 관점도 언급됐다. 세 번째는 문화예술 외 이종 분야와의 협력 관계 구축이다. 기후 환경 부문의 민간 단체를 비롯해 ESG 부문에 있어 전문성을 가진 외부 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한편, 지역사회 등 가치사슬value chain 내 이해관계자와 직접 소통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존립 목적 자체가 ESG 경영과 밀접하다. 그래서 문화예술기관의 ESG 경영은 문화예술이라는 특수한 영역의 특징을 반영한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 이것은 곧 문화예술계의 ESG 경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것과 맞닿아 있으며, 그 답을 찾아가다 보면 문화예술에서 ESG 경영의 독자적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예술에서 발견한 회복의 실마리

친환경에서 '필환경'으로

예술은 향유의 대상이자 기여의 주체이기도 하다. 누구보다 변화에 기민한 예술가·단체·기관은 오래전부터 지속 가능한 환경에 대한 고민을 이어왔다. 그리고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경험 이후 실천의 속도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팬데믹, 극장을 되돌아보다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이 공연·무대 용품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리스테이지 서울Re:Stage Seoul'의 시범 운영이 시작됐다. 리스테이지 서울은 버려지고 방치되는 공연 물품을 공연예술가들이 함께 이용하고, 사용한 물품은 재활용할 수 있는 실천 플랫폼이다. 누구나 온라인 플랫폼(stagegotgan.co.kr)에 접속해 소품·의상 등을 색깔이나 재질별로 검색할 수 있으며, 성동구 성수동 소재 오프라인 창고를 방문하면 직접 대여도 가능하다.

기후 위기에 대한 염려는 꾸준히 이어져왔지만, 극장과 전시장을 봉쇄해버린 코로나19처럼 강력한 경고는 없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사태는 사회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고 공연예술계는 콘텐츠의 비대면 전환을 시도했다. 지금까지 의심의 여지 없이 이어져온 관습에 대한 반성도 이어졌다. 인간 중심의 자연 지배적 관점이 아닌, 새로운 관점을 담은 예술의 존재 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익숙하게 버려지는 공연 용품의 선순환을 시도한 리스테이지 서울처럼, 작게는 소품부터 크게는 공연 프로듀싱에서 무대 제작까지 공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공연예술 창제작을 위한 안내서』를 발간하고 지속 가능한 공연예술 창작 사례 공유에 나섰다. 안내서가 제안하는 '지속 가능한 창제작' 기본 방향은 총 여섯 가지다. ❶사용하지 않거나 줄이기 ❷다시 사용하기 ❸용도를 바꿔 사용하기 ❹재활용하기 ❺지역에서 자원을 확보하기 ❻수평적이고 협력적인 논의와 실행이다. 사실 공연예술 자체가 탄소 배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 최준영 문화사회연구소장은 안내서에서 '공연예술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발생시키는 것은 관객의 이동과 극장의 시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겨우 극장으로 돌아온 관객의 발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극장의 시설을 재점검하고,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며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 공연예술이 선택한 해답이다.

제작 방식에서 운영까지, 광범위한 변화

김광보 국립극단 예술감독은 2021년 1월, 취임 기자 간담회에서 환경과 기후, 배리어프리 등 시대의 화두를 극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뒤이어 창작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탄소발자국 줄이기를 시행하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으로 지구 위기에 대응하는 공공극장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첫 실천으로 2022년 5월, 전윤환 작·연출 〈기후비상사태: 리허설〉이 명동예술극장 무대에 올랐다. 이 프로덕션은 기후 위기에 대한 메시지를 담은 작품 내용 외에도 공연 후 작품의 친환경 제작 과정에 대한 기록, 실천 내용과 결과, 탄소발자국 계산 리포트, 친환경 제작 업체 리스트가 수록된 『2022 국립극단 제작공연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기후노트』를 발간해 눈길을 끌었다. 국립극단은 이 밖에 소품·세트·장비 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공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다가오는 10월에는 부산 기장군 일광해수욕장에서 2023 바다미술제가 열린다. '깜빡이는 해안, 상상하는 바다'를 주제로 한 이번 전시 감독으로 그리스 출신 이리니 파파디미트리우Irini Mirena Papadimitriou가 선임됐다. 전시의 하이라이트 세션은 '바다미술제 실험실'. 예술가를 비롯해 해양 과학자·연구원 등 학자와 활동가들이 모여 어떻게 바다를 복원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예술가의 활동 영역이 전시를 넘어 연구와 실천으로 외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이다.

↑ 국립극단 〈기후비상사태: 리허설〉 ©국립극단
← 성수동에 위치한 '리스테이지 서울' 창고

↑ 국립현대미술관 《대지의 시간》 전시 전경
©김경태/국립현대미술관

← ← 아르코미술관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 전경
©아르코미술관

← 2023 춘천마임축제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
©춘천마임축제

때로 미술관은 관객과 예술가의 친환경 행동을 이끄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올해 서울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10축제'를 시작했다. 주제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공감예술이다. 첫 번째로 선보인 프로그램은 '플로깅+야외영화'로, 서울관을 출발해 청와대-경복궁-광화문-서촌-북촌-삼청동 일대를 함께 걷고 쓰레기를 주워 미술관으로 돌아오는 행사다. 밤에는 미술관마당에서 파리의 예술과 시대상을 아름다운 영상미로 구현한 애니메이션 영화 〈파리의 딜릴리〉를 감상하고 무비토크를 진행했다. 5월 플로깅 행사에 이어 9월에는 친환경 미술관 장터, 11월에는 융복합 공연과 대담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과천관에서 열린 전시 《대지의 시간》에서 전시장 내 가벽을 없애는 대신 구형의 반사체를 설치하는 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중대형급 전시 기준 평균 5~7톤의 폐기물이 생산된다는 점에 착안해 영구적으로 재사용할 수 있는 에어볼을 설치하고 관객의 동선을 구분한 것. 큐레이터는 "폐기물을 다시 쓰는 일회적 재사용 방식을 넘어 전시 시작부터 폐기물량을 줄이고자 했다"는 기획 의도를 밝혔다.

전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선순환을 고민하는 미술관은 또 있다. 아르코미술관은 지난 1월까지 폐기물 나눔과 관련한 주제기획전 《일시적 개입》을 마친 후 작품에 쓰인 26개의 목재 테이블과 선반을 재활용했다. 예술을 기반으로 작품 제작 문화와 창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투리 자재의 쓰임을 고민하는 단체 피스오브피스와의 협업을 통해서다. 전시에 사용된 흙은 사연을 신청받아 관객과 나눴으며, 햄스터의 보금자리나 농가 등으로 보내졌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5월 기후 변화·탄소 저감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미술관 매뉴얼'을 공개했다. 전시가 끝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기증 방안이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홍보물 제작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르코미술관은 매뉴얼 작성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축가와 지속 가능한 예술을 고민하는 예술가 콜렉티브의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 소격동 아트선재센터는 지난해 8월, 문경원&전준호의 《서울 웨더 스테이션》에서 최초로 로봇 강아지를 선보였다. 로봇 강아지는 멀티미디어 설치 작품 사이를 지나며 관람객에게 동선을 안내하는 동시에 전시실 내 탄소량을 측정했다. 포집한 탄소 수치는 실시간으로 전송돼 '탄소 달력'을 만드는 데 이용됐다. 이 전시는 월드웨더네트워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28개국 예술기관이 공동 주체가 돼 각자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worldweathernetwork.org)을 구축해 날씨와 환경에 대한 소식을 업데이트했다.

월드웨더네트워크처럼 창작자인 동시에 기후 변화 감시자로 활동하는 예술가들도 있다. 2013년 결성한 IVAAIU CITY는 설치 예술과 오디오 비주얼 퍼포먼스 등 하나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콜렉티브 그룹이다. 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융복합 작업을 시도하며 꾸준히 환경에 대한 화두를 던져왔다. 그중 〈Washed〉는 기후 변화와 난개발에 의해 점차 침식되는 해안선을 다룬 작업이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육지가 점차 물에 잠기고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이 증가하는 동해안의 환경 데이터를 알고리즘화해 파도와 모래의 움직임을 만들어냈다. 이 움직임은 시각적으로 편안함을 주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데이터는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던진다.

축제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그렇다면 다시 돌아온 축제의 풍경은 어떨까? 춘천마임축제는 지난해부터 친환경 축제를 선언하고 올해도 이동식 발전차·발전기 대신 친환경 축전 시스템, 반영구적 이동식 배전반과 모듈형 전기라인 개발, 쓰레기 없는 축제를 위한 다회용기 사용, 인쇄물 최소화와 재활용 MD 제작 등을 실천했다. 축제의 킬러 콘텐츠인 〈불의 도시; 도깨비 난장〉의 하이라이트 '파이어워크'는 실제 불꽃 대신 8천 개의 LED 캔들과 알코올램프, 야광 자갈 등으로 대체했다. 8월에 열리는 서울프린지페스티벌 역시 지난해에 이어 에코프린지 워크숍을 운영하고 해외 친환경 축제 사례를 연구하며 운영 방향을 점검하고 있다.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지난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다양한 예술 형식과 예술의 역할을 질문했으며, 올해도 생태주의 관점을 내세운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처럼 축제 현장도 환경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는 작품을 선보이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운영 자체의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다. 예술 분야 스스로 ESG 경영을 고민한다는 의미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불필요한 관습이 점차 허물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기후 위기를 향한 실존적 고민은 이제 우리 모두의 숙제다.

S

1 × 1 = ∞

서울문화재단, 기업과 손잡다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은 오늘날 재무 성과보다도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문화예술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해지려는 노력은 비단 기업이 성장하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문화재단은 2013년, 문화예술 기부 후원 유치와 제휴 확대를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11년 동안 200여 개 외부 기업과 협력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한 사회적 가치 확산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사업을 기획·추진해오고 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문화예술의 힘을 발현하고자 서울문화재단과 기업이 함께 노력한 대표 사례와 성과를 소개한다.

서울문화재단은 2021년 문화예술 분야의 ESG 지속가능경영 가치에 입각한 제휴 활동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트렌드 분석' 연구를 진행, 사회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증진하는 문화예술의 6대 전환적 가치를 도출했다. 연구에선 이를 크게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 환경적 가치로 구분하며, 이 중 사회적 가치는 다시 ❶문화예술을 통한 다양성 제고 ❷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증진으로 나뉜다.

잠재된 재능을 발굴하고 팬데믹을 함께 극복하며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한 다양성 제고'를 위해 특히 장애예술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기업과 협력해 활동을 펼쳐왔다. 대표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효성과 함께 운영한 '굿모닝 스튜디오'가 있다. 해당 사업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최초 장애예술인 전문 레지던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구 잠실창작스튜디오) 입주예술가의 창작 활동과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왔다. 사업을 진행한 5년간 장애예술인 50여 명을 지원했고, 예술적 확장을 모색하는 워크숍과 전문가의 비평집 제작 등을 통해 예술적 역량 강화를 도모했으며, 누적 관람객 4천 명이 넘는 기획전시를 개최해 장애예술의 가치와 참여 작가의 작품 세계를 알리는 기회를 만들었다.

이보다 앞서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조아제약이 장애아동과 전문 예술가(멘토)를 일대일로 연결,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젝트 A'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에 참여한 장애아동·청소년 40여 명은 재능기부로 참여한 유명 작가들과 멘토링, 워크숍, 전시 등을 진행하며 잠재된 재능을 발현하고 미래의 예술가로 성장할 수

→ 2018년부터 현재까지 효성과 서울문화재단이 협력해 운영하는 '굿모닝 스튜디오' 2019년 입주작가 기획전시

있었다. 참여 아동의 작품 전시에는 8년간 약 8만 명의 시민이 다녀갔다.

2022년에는 뷰티 기업 로레알코리아와 장애예술인의 친환경 예술작품 창작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국내 장애예술인을 대상으로 친환경 주제의 창작 작품 공모전 '크리에이트 유어 뷰티Create Your Beauty'를 진행해 장애예술인 6명을 선정, 상금을 수여했다. 이후 공모전 선정작은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전시되기도 했으며, 로레알코리아는 이를 제품 패키지 박스 디자인으로 활용했다.

서울문화재단은 2020년부터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갑작스럽게 위축된 예술계와 활동 기회를 잃은 예술인을 돕기 위한 기업과의 제휴 사업도 활발히 추진해왔다.

대표적으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포르쉐코리아와 운영하는 '포르쉐 두 드림 사이채움'이 있다. 이 사업은 팬데믹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은 공연예술계를 위해 포르쉐코리아와 서울문화재단이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연예술단체의 객석 수익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공연예술 향유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 이 사업의 수혜자는 공연단체 110여 팀, 예술인 3천여 명에 이른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에는 오프라인 공연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무대가 사라진 공연예술단체를 위해 서울문화재단과 신한카드가 긴급히 협력했다.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400석 규모의 공연장 신한카드 판스퀘어를 무료로 대관하고, 무관중 공연 개최와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송출까지 돕는 '공연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지원사업'을 운영했다. 이 사업을 통해 12팀의 단체가 무관중 온라인 공연을 진행했고, 제작된 공연 영상 콘텐츠는 3만 명 넘는 시민이 관람했다.

이 밖에도 재단은 2020년, 화장품 브랜드 맥코리아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부한 재원을 활용해 코로나19로 작품 전시와 판로 개척이 어려워진 예술인의 영상·미디어아트 작품 33점을 구매해 전시를 개최하는 '청년예술청 작품 구매 사업'을 추진했다. 오비맥주와는 코로나19 극복 캠페인 '스테이 스트롱Stay Strong'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으로 재단이 운영하는 서교예술실험센터의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사업'과 연계, 인디뮤지션 9팀의 라이브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팬데믹 시기 예술 활동에 어려움을 겪은 예술인을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

문화예술이 더 많은 이들과 만날 수 있도록

또 다른 문화예술의 전환적 가치인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증진' 측면에서는 지역사회와 시민을 위한 사업을 펼쳐왔다.

앞서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와 '프로젝트 A' 사업을 8년간 협력한 조아제약은 2021년부터 서울 지역 가족 공동체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사업 '가족 소통 프로젝트 Fa:Com(빼꼼)'을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격차, 세대 간 단절 등으로 점점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획한 이 사업은 3년 동안 20여 가족과 함께 다양한 워크숍 프로그램, 참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 제작, 사업 결과 전시 등을 진행했다.

한편 서울예술교육센터는 2022년 올림푸스한국과 함께 예술을 매개로 회복과 연결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민 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을 운영했다.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한 이 프로젝트에서는 코로나19를 비롯해 투병 생활을 겪은 이들이 느낀 외로움·고립 등 감정과 단절된 사회관계를 회복하는 경험을 예술 작품으로 표현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문래예술공장은

↑ 조아제약은 2021년부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와 문화예술교육 사업 '가족 소통 프로젝트 Fa:Com(빼꼼)'을 운영하고 있다

↖ 2022년 올림푸스한국과 협력한 서울예술교육센터 시민 참여 프로젝트 '감정문답'에 시민 1,300여 명이 참여했다

→ 지난 7월 13일 열린 2023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협력 제안 설명회
→ 조아제약과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한 '프로젝트 A'
→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한카드와 협력해 신한카드 판스퀘어에서 진행한 '공연예술단체 온라인 공연 지원사업'

문래동 지역에 사옥을 둔 기업 GS SHOP과 '문래창작촌 지원사업 MEET'를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공헌했다. 문래창작촌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예술단체, 문화예술 기획자·활동가, 문화예술 공간 등 4년간 1천여 명 넘는 지역 내 문화예술 활동 주체가 지원을 받아 120건 이상의 예술 프로젝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 재단이 지역사회 안에서 삶의 질을 증진하고,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문화재단은 이 밖에도 한성자동차와 함께한 배리어프리 인식 개선 캠페인 '소원반디'2019-2020, 삼육오엠씨네트웍스와 장애예술인 및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장애예술인 이동 지원사업'2020-2022 등을 통해 문화예술계 배리어프리 문화 확산에도 힘쓰는 등 여러 기업과의 제휴 협력 사업을 통해 문화예술을 매개로 사회적 가치를 발현하고자 폭넓은 층위의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포브스 사회공헌대상, 디지틀조선일보 주최 사회공헌대상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한 서울문화재단은 관련 활동과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해나가고자 2022년부터 국내 공공기관 최초의 기업 대상 ESG 제휴 사업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지난 7월 13일에 열린 2023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문화예술 협력 제안 설명회에는 32개 기업의 관계자 50여 명이 참여하며 ESG 가치에 기반한 문화예술 사업에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서울문화재단은 매년 다양한 사업을 통해 ESG를 실천하고 있다. 특히 재단 예산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는 사업을 기업과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기획하고 실행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G

보이지 않는 우리 사회의 울타리

청년예술청 거버넌스를 말하다

'거버넌스'는 눈에 보이는 외부 변화보다도 조직 내부와 구성원에 가장 먼저 영향을 미치는, 자가 변화의 방식을 띤다. 태생부터 거버넌스와 공존하며 '청년(예술)'을 위한 매개가 되고자 한 청년예술청의 지난 시간을 짚어본다.

김민정은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팀에서 청년예술청 거버넌스 커뮤니티 통합 운영을 맡고 있다.

김정엽은 예술경영을 전공하고 문화예술정책을 연구하는 독립연구자다. 2021년부터 서울청년예술인회의에 함께하며 연구릴레이·문답연구단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는 라운드 SAPY '라운드 더 테이블'을 공동 기획하고 참여해 문화예술계의 담론 형성에 함께했다.

청년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을 위해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당사자' 중심으로 펼치는 공간. 청년예술청을 소개하는 문구인데요. 유독 '당사자 중심'이라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김민정 새롭게 탄생하는 공공 공간이 관 주도의 기획 방향이나 활용 방향에 의해 규정되지 않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라 선언하고 계획한 만큼 청년 예술인이 직접 이 공간을 어떻게 꾸미고 무엇을 담을지 논의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당사자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어요. 청년예술청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 정엽 님은 이 단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엽 '당사자 중심'이라는 키워드는 안티테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청년들이 부재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책과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될 청년이자 예술인이 당사자성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어요. 그동안 주목받지 못하고 관심이 결여되던 존재에서 벗어나 청년이 주인이 돼 공간을 이끌어가고, 이곳에서 발생할 여러 제도에 대해 주인공이 돼 직접 실행하고, 피드백할 수 있겠다는 이상을 꿈꾸게 한 단어이지 않나 싶어요. 사실은 마음이 좀 아프기도 했어요. 청년 예술인이 얼마나 기성의 여러 가지 바람과 권력, 위계에 휩쓸렸기에 '당사자 중심'이라는 말까지 등장했나 싶은 거죠. 사실은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제도와 정책이 팽배하면서 정말로 청년 예술인이 당사자성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했는가 하는 물음도 갖게 되고요.

김민정 청년예술청이라는 공간의 설립 목적과도 부합하는 부분이 있죠. '청년'과 '예술'이라는 단어에 대해 기성세대가 정의하는 기존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화예술 사업과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을 다시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은 이곳 청년예술청 공간을 토대로 펼쳐지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행정 용어로 무엇이라 불러야 할지 고민이 많았고, 취사 선택된 방식이 '거버넌스'라는 의사 결정·조직 방식이었어요. 청년예술청은 공간을 특정 목적으로 규정하거나 정의를 두지 않거든요. 화이트룸은 전시를 열기에 좋은 공간이지만 전시 목적으로만 대관하지 않는 것처럼요. 청년예술청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판'으로서 역할을 하고, 그 위에서 청년 예술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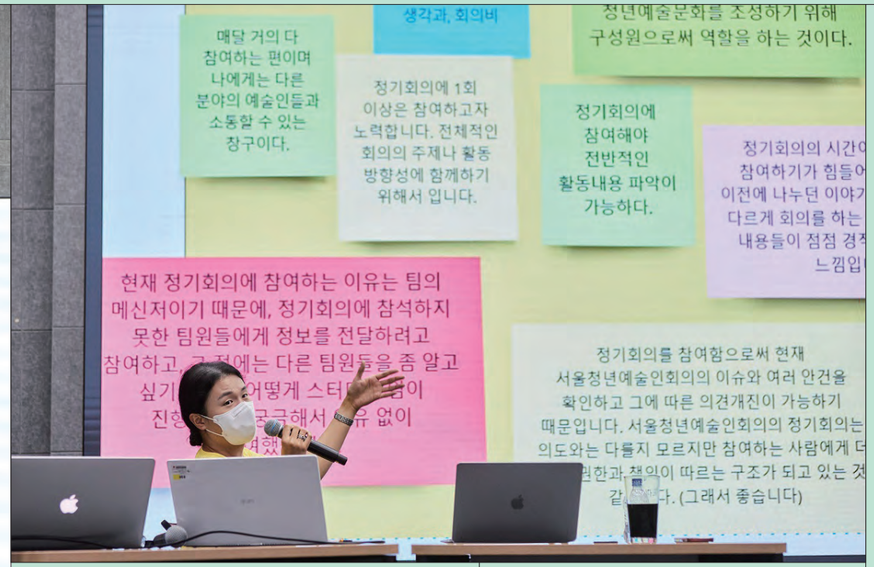
개관 당시 민관 운영의 협력 파트너로 6명 구성의 공동운영단을 두었는데요. 이때의 경험이 궁금합니다.

김민정 당초 2020년 초 개관을 목표로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개관이 4분기로 미뤄졌어요. 그 과정에서 공동운영단을 선정해 이들과 5~6개월 정도 시범 운영 기간을 가졌습니다. 새롭게 문을 여는 문화예술 공간이니 홍보도 하고, 실제로 각각의 공간을 사용해보면서 사용자 친화적인 매뉴얼의 초안을 만드는 작업을 했고요. 청년예술청이 '플랫폼'을 표방하는 만큼 많은 시간 비어 있는 상태일 텐데, 이 공간 안에서 어떤 것들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했죠. 당사자 주도의 협치 모델을 만들자는 데 모두 공감하고 이곳에 모였지만, 거버넌스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공간의 거버넌스 모델을 그대로 이식하는 건 불가능했어요.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지만, 민관이 협의해 이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효능감을 느낀 분들도 계실 거에요. 이제 청년예술청이 문을 연 지 4년 차인데요. 공동운영단은 애초에 기획한 것처럼 거버넌스가 청년예술청 운영의 중심 역할을 맡고, 여전히 당사자 주도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데 든든한 시발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엽 대부분 거버넌스가 민관 협치로 이뤄지고, 소수의 운영단을 중심으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치를 이루는 과정 자체가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예술청의 개관은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이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술인들의 기대와 관심이 많이 쏟아졌고, 그 과정에 함께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김민정 2020년에 열린 프로그램이 258개, 참여한 사람이 1,981명이었네요.

김정엽 기존 민간 거버넌스보다 더 넓은 범주의 사람들이 한데 모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특별했고, 그게 엇비슷한 거버넌스와의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 서울청년예술인회의 2022년 8월 공유모임
← 서울청년예술인회의 1차 오픈토크 '숨은참조'

청년 예술인으로서 청년예술청 거버넌스에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은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김정열 예술인이나 예술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소속감을 느끼는 일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학교나 직장처럼 누구나 한 번씩 거쳤을 소속은 있지만, 자기 작업을 하는 이들이 소속감을 느끼기란 쉽지 않죠. 저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라는 거버넌스에 참여했는데, 건강하고 안전한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에 좋은 거버넌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속을 갖고 예술계 안에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당시 서울청년예술인회의 내에 '연구릴레이'라는 연구자 모임이 있었는데, 저 역시 문화정책 연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직무에 관한 연대감을 느끼고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어요. 실제 거버넌스의 흐름도 느껴보고 싶었고요.

2021년 서울청년예술인회의 구성원으로 시작해 올해는 서울청년예술인회의의 운영그룹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의사 결정 과정에 위계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운영그룹이 없다가 올해 처음 생겼다고 들었습니다. 평등한 의사소통을 지향하는 거버넌스 내에 무언가를 대표하거나 결정한다는 부담은 없나요.

김정열 정말 오랫동안 고민한 부분인데요.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오랫동안 위계를 탈피하려는 가치관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운영그룹, 준비그룹, 책임그룹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무척 고민이었죠. 하지만 그간의 청년예술청 거버넌스를 살펴보면 그 구조와 방식이 꾸준히 변화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020년까지는 소수의 공동운영단으로, 2021년부터는 다수의 구성원 체제로… 그 과정에서 각각의 장단점을 발견했고, 그렇다면 또 다른 모델에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실험해보자고 마음먹었어요. 지금까지 운영해온 모델을 정답으로 여기지 않아요. '운영그룹'이라는 표현은 있지만 저희는 여전히 모두가 동일한 권한과 참여를 보장하고 있죠.

청년예술청에서 운영하는 세 가지 거버넌스에 관해 소개해주세요.

김민정 라운드 SAPY는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 활동을 전개하는 거버넌스라고 할 수 있어요. 다수 중심의 커뮤니티형 거버넌스로 운영되면서,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청이 예술 창작의 매개가 되기도 하고, 네트워킹을 제공하거나 때때로 그저 온전히 어떤 작품의 실현을 위한 무대가 되기도 해요. 다양성과 확장성이 열려 있는 거버넌스고요.

김정열 청년예술청 공동운영단이 '라운드 SAPY'로 명칭을 변경했는데, 이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가장 큰 모델은 운영 멤버만 아니라 사업 참여자도 거버넌스의 운영과 기획, 참여에 동등한 권한과 입장을 가진다는 점이에요.

김민정 2022년에는 지역에 기반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라운드 충정로', 장애예술에 관한 현장의 경험을 모으고 매뉴얼을 다시 써보자는 취지로 기획된 '라운드 장애예술', 테이블에 모여 예술 현장의 이슈를 나누고 담론을 확산하는 '라운드 더 테이블'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서울청년예술인회의는 연구와 담론 중심의, 이름 그대로 수많은 회의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카이빙하는 거버넌스고요. 마지막으로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플랫폼 'NONE: 넌'은 공간 기반의 창작 기획 활동과 포럼·릴레이 토론과 같은 담론 확산 작업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예술계 안에서 어떻게 안전망을 형성할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사적 발화를 공적 발화로 이어 나가는 좋은 방법을 찾은 거죠. '성평등', '탈위계'라는 주제를 연간으로 가져간다는 점이 다른 거버넌스와 가장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로서 거버넌스를 운영하며 가장 유의미하다고 느낀 지점은, 청년예술청 관계자의 기획 의도나 필요에 의해 특정 거버넌스가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당초 운영 예산부터 청년자율예산에서 비롯해 청년예술청 공간은 베이스캠프가 되어 거버넌스의 운영을 촉진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은 서울문화재단의 자체 예산으로 편성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개관 당시보다 청년예술청의 역할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요.

김민정 지난해까지는 물리적으로 공간을 운영하는 것, 세 가지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주요 흐름이었는데, 올해부터 청년예술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을 설계하고 있어요. 유망예술 지원사업이나 청년예술

→ 2022년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플랫폼 [NONE: 넌]
→ 2021년 성평등·탈위계 문화조성 사업 아카이브북

지원사업도 이곳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청년예술청 거버넌스에서는 청년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지속해 오고 있어요. 청년예술과 관련해 담론을 재생산하고 있는 청년예술청이 앞으로 지원사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제입니다.기존에 문제로 지적된 부분을 실제 지원 정책 설계까지 반영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팀 내부에서 선순환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변화로 봅니다.

김정열 청년예술청이 잘 발전하고 확장해나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 참 감사한 부분이 많아요. 이 공간을 매개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유의미하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공간만큼은 권력화되지 않아야 한다는 경각심이 듭니다. 워낙 청년과 예술에 관해서는 뭐든 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공간 지원이나 지원사업을 넘어서 점점 '청년'과 '예술'에 관련한 갖가지 것들이 모이는 느낌이 들거든요. 청년예술청이 행정적으로 편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으나, 권력화된 예술공간이 매우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전례를 생각하면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잘 분별하고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직접 경험하고 고민한 '거버넌스'란 궁극적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김정열 '거버넌스'라는 이론에 관해 지식 면에서 공부는 많이 했어도 실제로 현장에서 느끼는 거버넌스는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거버넌스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협치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다양하다보니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워지거든요. 거버넌스의 주체가 많아질수록 혼란이 심해지죠. 명확한 질문과 답변은 온데간데없고, 모호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것들의 집합만 남아요. 그래서 거버넌스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라는 것이 계속 부상하고

주목받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기구이자 장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야 그 의미가 계속 유지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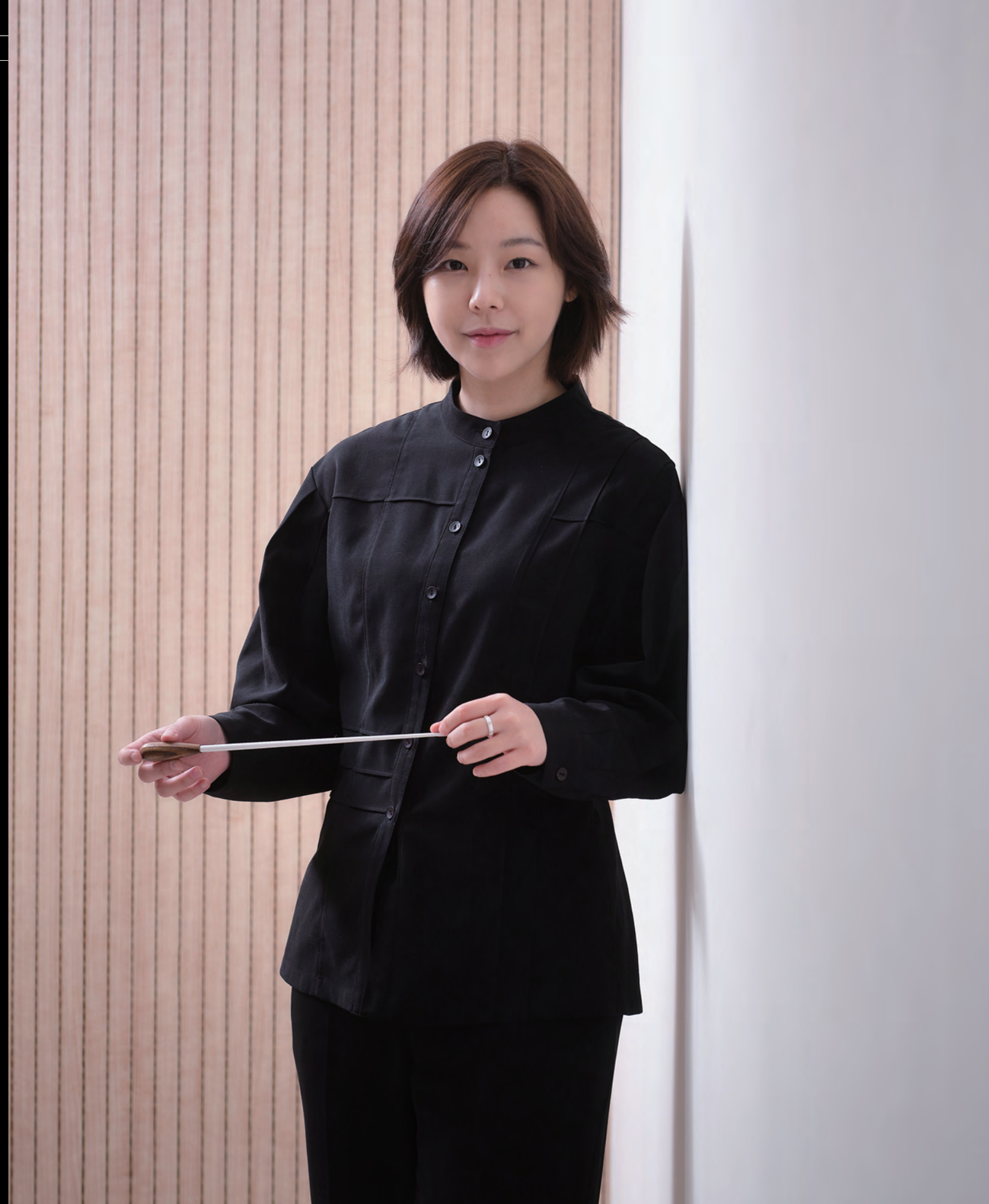
김민정 종종 '학습의 장'이라고 생각해요. 한국 교육과정에서 체험하지 못한 경청의 장, 숙의의 장이 바로 거버넌스인 거죠. 효율주의가 만연하고 빨리빨리가 만능인 사회에서 거버넌스는 아주 귀한 경험이에요. 누군가는 거버넌스의 어원을 조정 경기에서 노를 잡는 것으로 비유하더라고요. 재단 안에서 거버넌스가 잘 나아가기 위해서 함께, 미리 항로를 그리는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정열 거버넌스가 과정만 아니라 결과까지 좋고 발전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대면하길 바라요. 거버넌스 안에 형식적으로 존재하거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아서 아쉬운데, 거버넌스가 발전하고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추구하는 가치를 잘 설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passage

예술가의 진심
휘둘리지 않는 진솔의 지휘봉
페이퍼로그
공연기획팀 최영한
문화+후원
WTC Seoul의 매체 후원
인사이드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3
금천예술공장 14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쿼드 여름페스타
예술단체 아카이브
예술하는아이다
아하콜렉티브
트렌드
'단호한 지휘자' 에버 6의 국립국악관현악단 데뷔기
해외는 지금
예술가가 수집한 예술

휘둘리지 않는 진솔의 지휘봉



이름은 첫인상에 영향을 미친다. 지휘자 진솔을 처음 알았을 때, 그의 이름이 뇌리에 강하게 박혔다. 왠지 솔직할 것 같은 사람. 언젠가 그는 자기 자신을 두고 "무엇이든 해 보고자 하는 모험심에 약간의 반골 기질이 곁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는 솔직함이 멋있어 보였다. 이번 인터뷰를 위해 그의 서초동 작업실을 찾았다. 만나자마자, 궁금했던 이름의 뜻을 물었다.

"부모님이 음악을 하셔서 계이름 '솔'을 이름에 넣은 거예요. 저는 사람이 이름 따라간다는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해요. 음악에서는 '솔' 음이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진솔하고 깨끗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고요. 사전을 찾아보니 한 번도 빨지 않은 새 옷이라는 뜻도 있더군요. 진솔이라는 이름의 뜻이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솔의 아버지는 작곡가 진규영, 어머니는 소프라노 이병렬이다. 아버지는 외동딸이 음악가가 되는 걸 반대하면서도 취미로 피아노와 작곡 이론을 배우게 했다. 불안정한 음악가의 길을 걷지 않았으면 했지만, 한편으로는 음악을 평생 곁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던 것이다. 그런 딸이 지금은 어엿한 프로 지휘자가 되어 바쁘게 포디엄에 오르고 있다. 음악가로 대성한 그를 보며 부모님은 어떤 조언을 해줄까.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게 긍정의 뜻인가 싶기도 하고요. 이제는 저를 음악가로 존중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작품을 여러 번 지휘했는데, 리허설 때마다 늘 저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제가 하는 작품 해석도 프로페셔널한 영역으로 받아들이시고요."

진솔은 언론에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자였음을 밝힌 바 있다. 어두웠던 학창 시절, 친구가 되어준 건 게임과 독서였다. 그는 어릴 때부터 롤플레잉이나 육성 시뮬레이션 게임을 즐겼다. 주인공이 탐험하며 레벨을 높이고, 동료와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좋았다. 지독히 외롭던 때에 게임을 통해 타인과 나누는 소통은 위안이 돼주었다. 실제로 만나진 않지만 가상의 공간에서 여러 캐릭터와 함께 있는 그 느낌이 좋았던 것이다. 마치 대학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듯 소속감이 느껴지며 마음이 충만해지는 시간이었다고.

"지금 다 극복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그때의 상황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까지 들었거든요. 하루하루 별 의미가 없었는데, 책이나 게임마저 없었다면 아마 더 방황했을 것 같아요. 혼자서 무엇이라도 해 보려고 노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게임을 즐긴다. 다만 바쁜 일정 속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건 힘들어서, 여유가 생기면 모바일 게임에 종종 접속한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덕후'의 숨겨진 힘이 주목받고 있다. 한 분야에 푹 빠진 사람을 의미하는 일본어 '오타쿠'를 한국식으로 바꾼 '덕후'는 이전까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자주 쓰였다. 특정 관심사에 깊이 빠져 고립된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특한 취향이 존중되는 오늘날에는 덕후가 트렌드를 이끌며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 진솔은 스스로 '덕후' 기질이 있다고 시원스레 인정한다.

"사실 지금 이 방(작업실)도 핑크색 인형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인터뷰가 있어서 급하게 치워 놓은 거에요.(웃음) 저는 좋아하는 걸 모으는 게 부끄럽지 않았어요. 진짜 덕후는 누구의 시선도 신경쓰지 않거든요. 주변에 클래식 음악 덕후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을 보면 악기도 꽤 잘하고 음악적 지식도 상당해요. 현직으로 활동하는 클래식 음악 평론가들도 대학 때 음악 관련 동아리를 거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음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음악비평을 한다는 게 이해가 잘 안 갔는데, 나이가 들면서 그분들이 '진짜'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느 분야에서나 덕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휘자의 길, 리더의 자세

진솔은 보수적인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 넣은 지휘자다.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만하임음대를 졸업한 그는 2015년 독일 바덴바덴 필하모니Philharmonie Baden-Baden를 지휘하며 정식 데뷔했다. 2017년에는 국내 최초로 게임음악 플랫폼 플래직FLASIC을 설립했고, 2016년에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를 창단해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그가 '지휘'라는 꿈을 꾸게 된 건 10대

후반이었다. 결정적 계기는 일본을 대표하는 마에스트로 오자와 세이지おざわせいじ가 지휘하는 카를 오르프의 '카르미나 부라나Carmina Burana' 영상을 보고 나서부터다. 교회 성가대에서 지휘자를 종종 보긴 했지만, 전문 지휘자의 앞 모습을 본 건 처음이었다. 그때 지휘자가 하는 일이 단순히 박자를 맞추는 정도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연주자와 소통하며 방향성을 제시하는 오자와 세이지의 모습이 강렬하게 와닿았다.

"음악은 시간예술이잖아요. 무대에서 제한된 시간 안에 모든 걸 해야 하죠. 오자와 세이지는 그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몸을 활용해 연주자들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더라고요. 영상으로 보니 더 입체적으로 다가왔어요. 눈빛으로 지시해서 음악을 만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연주자들과 에너지를 교환하는 느낌이었죠. 자신의 기를 던져서 연주자의 기를 끌어내고, 그걸 다시 청중에게 보내는 시스템이 흥미로웠습니다."

이후 그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합창지휘과에 입학했다. 학교에서 지휘를 배우며 처음 포디엄에 선 때 상상과 다른, 아주 이상한 느낌에 휩싸였다. 지휘하는 동작 자체가 어색하게 다가왔고, 뭔가를 지시하는 것도 애매했다. 이후 지휘에 필요한 동작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는데 그 느낌은 독일로 유학 가서도 이어졌다. 그는 최근에서야 지휘 동작에 관한 개념이 잡히기 시작한 것 같다고 솔직히 고백한다. "지휘는 평생 연구해야 하는 분야"라고 진솔은 힘주어 덧붙였다.

"저는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Leonard Bernstein과 테오도르 쿠렌치스Teodor Currentzis를 좋아해요.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모습을 보면 독특한 자세가 있는데, 처음엔 그 동작들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순간 저도 그렇게 지휘하고 있고요. 그 동작들은 누군가를 모방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음악을 위한 움직임이에요. 번스타인을 보면 자유로우면서도 분명한 음악을 제시해요. 쿠렌치스는 방향성이 마음에 들고요. 보통 쿠렌치스를 두고 무대 위 모습보다는 녹음이나 연주의 방향성을 논하는데, 음악이 독특하다는 평이 많죠. 물론 개성이 강해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특별한 걸 뽑아내는 도전적인 모습이 흥미로워요. 너무 눈치를 많이 보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고 도전적으로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가 매력 있죠."

대학에서 진솔은 지휘 외에도 대위법과 화성 공부에 푹 빠져 지냈다. 당시 음악 구조를 분석한 시간들은 지금 지휘하는 데 있어 자양분이 됐다. 그는 지휘 공부를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 보면 좋겠고, 특히 샬랑Henri Challan 화성학을 추천하고 싶다"고 이야기했다. 더불어 "푸가에 재미를 느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많은 작곡가들이 자신의 곡에서 힘주고 싶은 부분에서 푸가를 넣어요. 고전 작곡가들을 보면 뭔가를 주장하고 싶은 부분에서 푸가를 쓴 경우가 많죠. 푸가를 파고들면 지휘나 작곡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만하임음대 입학 시험 때도 클라우스 아르프Klaus Arp 교수님 앞에서 피아노로 푸가를 열심히 쳤던 기억이 나네요. 푸가를 좋아한다면서 어필했죠.(웃음)"

그는 만하임음대 오케스트라지휘과에 진학한 후 음악을 대하는 자세가 많이 바뀌었다. 처음 독일에 갔을 때, 한국에서 익힌 느낌대로 리허설에 임했더니 클라우스 아르프 교수에게 꾸중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수님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모두 동료라고 했어요. 그런데 '너는 수직 관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더군요. 은연중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독일에서는 수평적인 문화를 배웠습니다."

현재 유럽과 미국 음악계에서는 '여성 지휘자'가 이슈다. 그동안 클래식 음악 장르 중 여성의 진입 장벽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지휘였다. 여성 지휘자의 역사는 천천히 명맥을 이어오다가 최근 몇 년간 유럽과 미국의 주요 음악단체에서 여성 지휘자를 적극 등용하면서 새 시대를 열었다. 아울러 올해 개봉한 영화 〈타르〉는 베를린 필하모닉 최초의 여성 수석 지휘자 리디아 타르라는 가상 인물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러나 이 영화는 개봉 이후 오히려 반여성적 영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며, 여성 권력에 대해 여러 논점을 던졌다.

"저도 그 영화를 봤어요. 〈타르〉의 영화감독이 예술과 인성은 별개라고 생각한다더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인성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음악이 완성된다고 봐요. 음악이 사회에 많은 도움을 주면 좋겠어요. 저 역시 그런 음악가가 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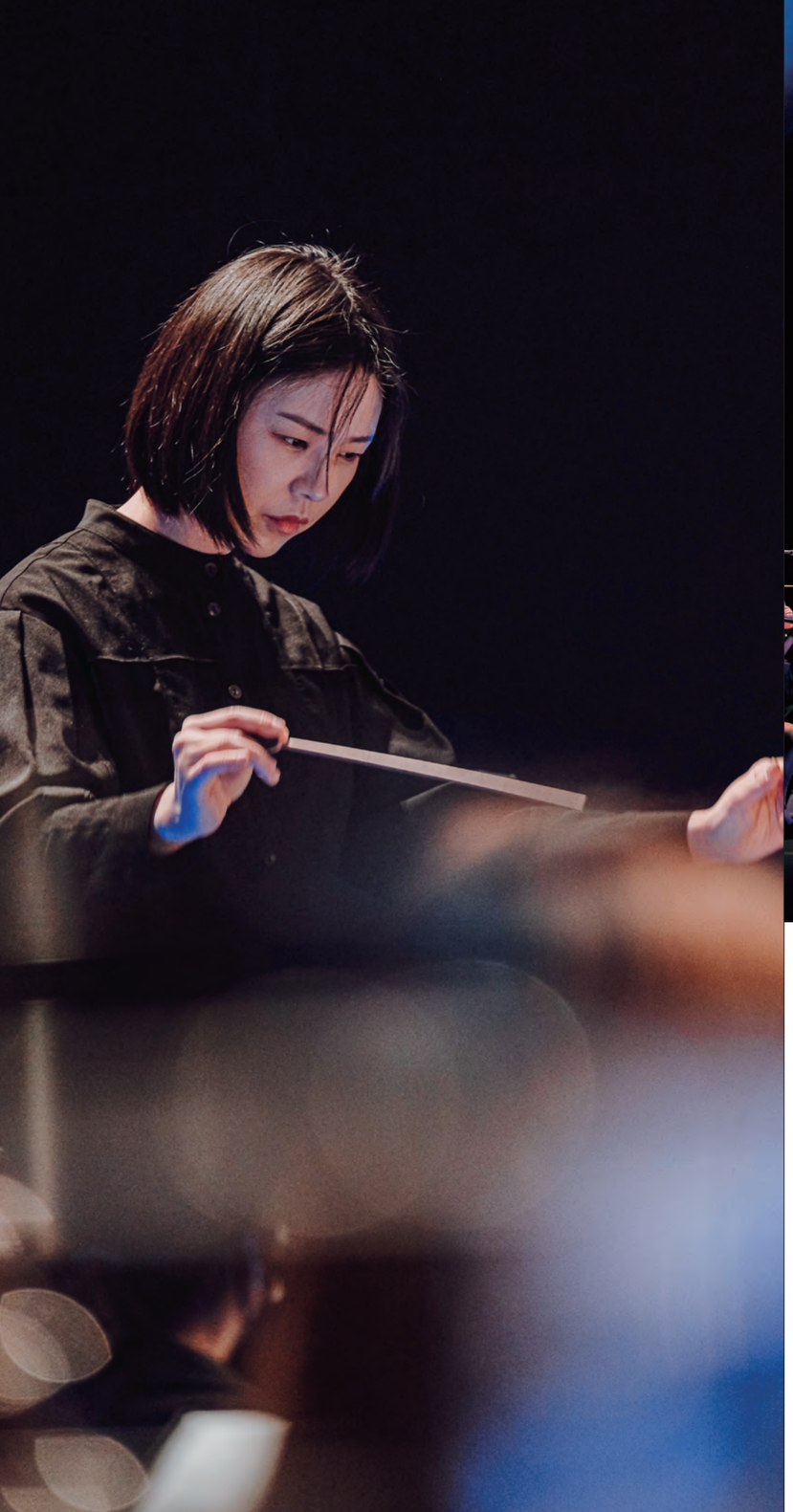
'덕후'의 마음으로
지휘봉에 진정성을 담으면

근래 들어 클래식 음악계에서는 게임음악의 예술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 흐름을 타고 국내에도 게임음악 공연이 잇따라 개최되고 있는데, 게임음악 공연의 섭외 1순위 지휘자를 꼽으라면 단연 진솔이다. 2017년, 진솔은 게임음악 플랫폼 플래직을 설립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즐기던 그는 문득 게임음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호기심이 생겼다. 한국의 주요 게임사에서 게임음악을 녹음할 때 해외 오케스트라와 함께 작업한다는 걸 알게 됐고, 국내에서 그 역할을 소화할 방법을 고민하다가 아예 게임음악을 연주하는 회사를 차린 것이다. 플래직이 하는 일을 간략히 설명하면 게임음악을 녹음·편곡·연주한다. 설립 초기부터 세계적인 게임사 중 하나로 꼽히는 블리자드와 지식재산권 계약을 맺으며 주목을 받았다.

"지휘자와 사업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요. 사실 플래직은 말이 회사지, 저는 연구소라고 생각해요. 우리 회사는 게임음악 관련 경험을 축적하며 수시로 바뀌는 저작권 상황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플래직을 게임음악 공연을 위한 선진 연구소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 진솔은 활동 초창기에 '게임음악 지휘자'로 명성을 얻었다. 그렇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게임음악 지휘자로만 이미지가 굳혀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이후로는 오히려 게임음악 관련 언론 인터뷰를 모두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최근 배우 이영애가 지휘자로 출연하는 새 드라마 〈마에스트라〉의 자문을 맡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가 일었다.

"대중이 생각하는 게 저와 참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 너무 전문적으로 하면 오히려 안 되겠다는 느낌도 들더군요. 그동안 우리 음악계가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압박감이 저에게도 은근 있었던 것



↑ 2022년 5월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스타크래프트 라이브 콘서트: 앙코르〉
← 2022 대한민국게임포럼을 계기로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래직 게임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진솔

같아요. 융합예술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으니, 이제는 제가 어떤 길로 가더라도 후배들에게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그가 꼭 지키고 싶은 건 '지식재산권'이다. 그는 플래직이 "저작권을 완벽히 지키는 공연만 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창작자의 권리를 악용해서 사업을 하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도 저작권에 관한 분명한 개념을 갖고 사업을 이어 나가려고 해요. 상업성을 따라가기보다는, 덕후 같은 마음으로 원하는 바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싶습니다. 꼭 게임음악뿐만 아니라, 영화나 애니메이션 관련 음악도 깔끔하게 계약해서 정식으로 공연을 올리고 싶어요. 그게 플래직의 단기 목표죠."

그의 '덕질'은 게임, 게임음악만이 아니다. 후기 낭만파 작곡가 말러의 팬덤 이름인 '말러리안'을 자청하는 그는 2016년 말러리안 오케스트라를 발족해 말러 교향곡 전곡 연주를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러 교향곡 1·3·5·6·9·10번을 올렸고, 앞으로 5년 내에 모든 곡을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다.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초기에는 전공자와 아마추어가 함께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지만, 7월 30일 열린 말러 교향곡 3번(2023 서울문화재단 예술지원 선정작)부터는 전공자만으로 구성된 유스 오케스트라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했다.

"말러리안 오케스트라는 비영리 단체인데 어떻게 운영해야 건강할지 운영진과 많이 고민했어요. 그러다 코로나19가 갑자기 닥쳤죠. 그 여파로 약 3년 동안 음악 전공생들이 오케스트라 경험을 할 수 없었어요. 큰 무대에 서지 못하고 졸업하는 걸 보면서 걱정이 됐어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가 음악 전공생의 교류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유스 오케스트라 체제로 바꾼 겁니다. 지난 7월 공연의 오디션에서 모든 참가자와 면접을 진행했어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를 꼭 하고 싶은 이유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보니 저 역시 사명감이 생기더군요."

게임을 좋아하던 어린 학생은 자라서 우리나라 클래식 음악계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지휘자가 됐다. 그리고 30대 중후반에 들어선 지금, 진솔은 초연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길을 그리고 있다.

"마흔 살까지는 말러리안 오케스트라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싶네요. 이제는 현명한 성장을 고민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지휘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나 혼자 잘 살기 위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지낼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봐요. 앞으로 10년이 더 흐른다고 해도 저는 젊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정진하고자 합니다."

작곡가 말러는 말했다. "중요한 것은 동시대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라고. 또한 "실패로 좌절하거나 세상 칭찬에 으쓱해져 한눈팔지 말고 흔들림 없이, 단호하게, 자신의 길을 가라"는 명언을 남겼다. 그래서인지 말러의 음악을 들으면 모든 음악에 자신의 갈등을 담은 것이 느껴진다. 진솔의 지휘에 호소력이 느껴지는 이유도, 그 역시 온몸의 기억을 음악으로 풀어내고 있기 때문 아닐까.

공연기획팀 최영한

극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

당신을 소개해주세요. 어린 시절부터 극장에서 공연을 만드는 사람을 꿈꿔온 최영한입니다. 아름다운 공연과 축제가 도시와 사람들에게 선사하는 벅찬 감정을 안고 성장한지라 저 역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한 순간을 선물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학부에서는 문화관광, 대학원에서는 극장경영을 공부했습니다. 궁금한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편이라,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1년간 예술의전당에서 하우스어텐던트로 일했습니다. 실제로 극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고 싶었고, 관객과 만나는 최전선에서 극장 운영의 면면을 배우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이후로도 대학 생활 내내 문화예술 현장을 이곳저곳 쏘다녔고요. 그 과정에서 서울문화재단과 종종 마주쳤는데, 강렬한 첫 만남의 기억은 2008년 하이서울페스티벌이에요. 저는 제 고향 서울을 무척 사랑하는데요. 그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프로그램으로 경희궁에서 열린 서울시향 음악회를

즐기면서 이 도시와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좋은 기억 덕분에 다음 해 하이서울페스티벌에서 자원활동도 하게 되고, 점차 서울문화재단에 관심을 두게 된 것 같아요. 2020년 3월 입사해, 대학로극장 쿼드 개관과 함께 2022년 7월부터 공연기획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극장과 함께하는 시작이라 감회가 남달랐을 듯한데요. 새로 문을 여는 극장에서, 극장이 성장해가는 모든 순간을 처음부터 함께할 수 있는 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 안 되지?", "그럼 이렇게 해 볼까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극장과 함께하는 내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또 공연기획팀과 한 몸처럼 움직이는 무대기술팀 감독님들께서 공연이 잘되도록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주고 계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기획 프로그램으로 '쿼드 초이스'를 새롭게 발표하면서 예술성과 인지도 모두를 갖춘 예술가를 초청해 대학로를 찾는 시민에게 우수한 작품을 선보이고자 했는데요. 동시대적 화두, 세대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공감하며 모이는 극장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개관 2년 차를 맞은 지금은 더 많은 관객에게 우리 극장을 어떻게 각인시키면 좋을지 다각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극장이 되도록 모두가 노력하고 있으니 계속 지켜봐주세요.

쿼드에 대해 자랑 한마디만 더 한다면, 대학로극장 쿼드를 한마디로 소개하자면 '우리나라 공연예술의 중심 대학로에 위치한 블랙박스 극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술가의 상상을 얼마든 실현할 무한한 가능성과 실험의 공간이죠. 쿼드를 탐구하고 다채롭게 실험할 수 있는 예술가, 작품과 함께하고자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극장에서 예술 실험을 통해 좋은 작품을 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그 작품들이 관객에게 가닿는 것도 무척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학로극장 쿼드는 블랙박스의 매력을 관객의 일상 가까운 곳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가진 것 같아요. 또,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을 리모델링한 극장인 만큼 유산으로서의 가치도 무한하다고 생각해요. 최신 기술을 집약한 공간이지만 여전히 극장으로 걸어 내려가는 계단의 손잡이에서 지난 세월을 느낄 수 있어요. 오래됐으면서도 새것인 극장이라는 점이 또 하나의 특장점 아닐까 싶네요.

공연기획팀 이전에는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에서 근무하셨다고요. 입사 후 처음 근무한 부서가 잠실창작스튜디오(현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였어요. 시각예술 분야 장애예술가들의 레지던시이자 장애예술의 역사가 축적된 중심과 같은 곳이죠. 특히 제가 근무하던 무렵 장애예술과 관련한 재단의 사업 범위가 확장되고 있어서 과감히 도전하고 시도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장애예술가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과 사업 운영 방법을 실행해볼 수 있었고, 선배들과 공부하면서 장애예술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떤 태도로 장애예술가를 지원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레 몸으로 체득한 것들이 있고, 지금 이곳에서 장애를 가진 창작자나 관객과 마주할 때 직간접적으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쿼드는 모두에게 안전한 창작·관람 환경을 조성하고자 많은 준비를 한 극장이에요. 리모델링 단계부터 배리어프리를 고려했고, 개관 전후로 관련 전문가, 장애 당사자들과 워크숍을 진행했으며, 하우스 안내원들과 접근성 확대 워크숍을 열기도 했지요. 다양한 분들이 일상 공간으로서 극장을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나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신유청 연출의 〈더 웨일〉이 무대에 오릅니다. 영화로 잘 알려진 〈더 웨일〉의 원작이 연극이라는 것, 알고 계신가요? 연출가의 시선이 더해진 한국 초연작 〈더 웨일〉, 그리고 백석광 배우가 연기하는 주인공 찰리의 특수분장을 기대해주셔도 좋습니다. 추석 연휴를 서울에서 보낸다면 더더욱 예매를 서둘러주세요! 10월에는 한국 연극계의 거장 김우옥 연출의 〈겹괴기담〉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다섯 겹으로 나눠진 무대에 두 개의 괴기담이 교차되며 전개되는 구조주의 연극입니다. 연출가가 대학로극장 쿼드를 보면서 이 극장에서 꼭 다시 올려야겠다고 떠올린 연출가의 40년 전 작품이랍니다. 극장과 작품의 궁합을 기대해주셔도 좋아요. 이외에도 쿼드에서는 쉼 없이 다양한 공연이 올라가니, 궁금한 분은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최근 가장 뿌듯했던 경험을 꼽자면, 서도와 은미 〈만병통치樂〉 공연이 추가 오픈한 좌석까지 전석 매진을 기록해 시야방해석도 오픈했는데요. 그 많은 관객이 무더위를 모두 날릴 듯이 공연을 즐기고 신나게 귀가하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보람 넘치던지요. 그런 면에서 요즘 제 직업 만족도는 최상입니다!

나의 일상에 영감을 주는 것들을 소개해주세요. 저는 극장과 공연이 정말 좋아요. 텅 빈 무대의 냄새, 감독님들의 무전 소리, 리허설하는 예술가의 뒷모습, 하우스 오픈 전

고요한 객석의 풍경, 한껏 기대하는 관객들의 웅성거림, 안내 멘트가 끝나고 암전이 되는 순간의 긴장감… 이 모든 순간이 언제나 제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또 좋아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영감을 얻기도 해요. 공연을 올린 7월 어느 날, 제가 좋아하는 선생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극장에서 일하는 게 너무 신나고, 공연도 잘 마무리돼 오래 기억에 남을 근사한 여름밤이라고요. 공연을 준비하다보면 시시각각 해결해야 할 일이 산더미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그토록 바랐던 '극장에서의 나'를 떠올리며 매 순간 감사와 행복을 느끼려고 합니다.

WTC Seoul의 매체 후원

미디어아트의 가치와 가능성을 송출하다

무역센터 자산·시설 관리 전문 회사인 WTC Seoul은 무역센터 일대 미디어 매체를 관리하고 있으며, 지속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교류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문화재단과 협력해 시민이 도심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는 광고 송출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이 됐다. 그중 하나로 예술 작품의 디지털 송출을 꼽을 수 있겠다. 갤러리에서만 볼 수 있던 작품들이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송출되며 대중의 곁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된 현재, 외벽 미디어를 통해 작가와 대중이 더 가까이서 소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WTC Seoul은 미디어 매체 후원을 지속해오고 있다.

미디어아트와 시민을 잇는 가교로

2022년 무역센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민관합동협의회가 주최하는 서울미디어아트위크SMAW에 WTC Seoul과 서울문화재단이 첫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 문화예술 공공기관으로는 유일하게 서울문화재단이 2022 서울미디어아트위크에 참여한 것이다.

SMAW는 디지털 광고 매체를 통해 시민에게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또한 미디어아트로 예술과 기술의 융합을 탐구하고, 새로운 작품과 실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며, 대중과의 소통으로 미디어아트의 가치와 가능성을 널리 알리고자 기획했다.

서울미디어아트위크의 첫 순서는 서울문화재단의 지원을 받은 예술가들의 작품이 장식했다. 국내 대표적인 미디어아트 예술가들이 재단의 지원을 통해 창작한 작품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미디어 매체를 수놓았다. 최성록의 〈서울환상소경〉, Pivotal Lab(유재헌·추봉길·장수호)의 〈당산나무〉, 이예승의 〈정중동·동중동〉, 이수진의 〈불과 얼음의 노래〉, 김혜경의 〈Media樂:閾(궐), 꿈꾸는 桃源鄕(도원향)〉 등 총 5점이 매회 7분간 송출됐다. 특히 〈서울환상소경〉은 2022년 서울문화재단이 포르쉐코리아와 함께한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포르쉐 드리머스 온–시티 해커스' 선정작이며, 〈당산나무〉, 〈정중동·동중동〉은 2020년 서울문화재단이 설화수와 제휴해 제작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2022년 서울미디어아트위크를 통해 다시 선보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포르쉐 드리머스 온 미디어아트 프로젝트'는 서울문화재단과 포르쉐코리아가 작가의 예술적 영감을 일깨우고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행하는 프로젝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도시의 꿈과 색'을 주제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조영각 〈다시 피어난 거리의 노래〉와 김정태 〈레인보우 버스투어〉 두 작품이 최종 선정됐다. 해당 작품은 오는 10월 6주 동안 미디어 매체를 후원받을 예정이다.

↑ 2022 서울미디어아트위크 〈정중동·동중동〉
← 2022 서울미디어아트위크 〈당산나무〉

WTC Seoul이 이 사업을 후원하는 것은 신진 아티스트의 재능을 지원하고 창작을 활성화하는 것과 더불어, 시민에게 미디어 매체를 통해 작품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WTC Seoul은 외벽 미디어를 통해 궁극적 목표인 문화 교류 촉진을 이루게 됐고, 한국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 기회의 장을 만들었다.

WTC Seoul은 외벽 미디어 외에도 코엑스몰 내에 있는 DID를 통해 2023 바스락 콘서트, 제2회 서울생활예술페스티벌 참가자 모집, 서울예술인 NFT 홍보 영상 등 서울문화재단의 행사 소식을 송출하는 매체 후원을 지속하며 시민과 재단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역센터에 방문하는 많은 시민이 문화예술 행사에 더욱 관심을 두게 되기를 바라며, 남은 한 해 동안 또한 다채로운 후원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려함 이면의 소리,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3

'사운드아트'는 아직 다소 생소한 예술 장르의 하나다. 음악이면 음악, 예술이면 예술이지, 대체 '사운드아트'는 무엇이란 말인가. 사운드아트를 우리말로 직역하면 '소리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즉, 인간의 여타 감각보다 소리가 만들어내는 청각적 자극에 주목해 표현을 전달하는 예술 영역이다. 사운드아트는 지난 세기 처음 등장한 이후 때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른 장르와 조응하며, 때로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며 발전해왔다.

서울문화재단 문래예술공장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한 국제사운드아트창작워크숍 〈문래 공진Mullae Resonance〉에 이어 2020년부터는 음악·사운드아트 특화 사업 〈사운즈 온Sounds On〉을 운영해오고 있다. 리서치·창작·쇼케이스 발표 지원을 아우르는 〈사운즈 온〉은 지난 4년간 총 53팀의 실험음악 및 사운드아트 창작 활동을 독려해왔다. 올해는 2022년 〈사운즈 온〉 리서치 공모 선정작을 기반으로 발전시킨 신작 3편을 쇼케이스로 선보인다. 1년이 넘는 시간 세 명의 아티스트가 끈질기게 발전시켜온 사운드아트 작품을 오는 8월, 문래예술공장에서 만나보자.

← 조은혜, 〈위대한 독재자〉, 2019, 사운드 인스톨레이션, 감시카메라, 스테레오 사운드, 12×14.5×4m

조은혜 〈사이렌의 침묵〉

〈사이렌의 침묵The Silence of the Sirens〉은 앰비언스를 통해 언어 소통 과정에서 표면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 또는 감추어진 것에 주목한다. 앰비언스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소리지만 좀처럼 인식되지 않거나 단순 소음으로 여겨질 때가 있다. 이번 전시에서 관람객은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하나 분명 존재하고 미세하게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앰비언스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공간에 구현된 반응형 앰비언스는 관람객의 움직임을 유발해 미세한 차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탐험하게 한다.

전시의 제목은 프란츠 카프카의 단편 소설 『사이렌의 침묵The Silence of the Sirens』에서 가져왔다. 사이렌의 침묵은 그들의 노래보다 더 강력한 무기다. 침묵은 노래(언어)와는 달리 듣기와 이해의 방향을 고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침묵과 앰비언스처럼 표면적으로 들리는 것 너머의 무엇을 상상해보기를 바란다.

작품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들리지 않는 것을 듣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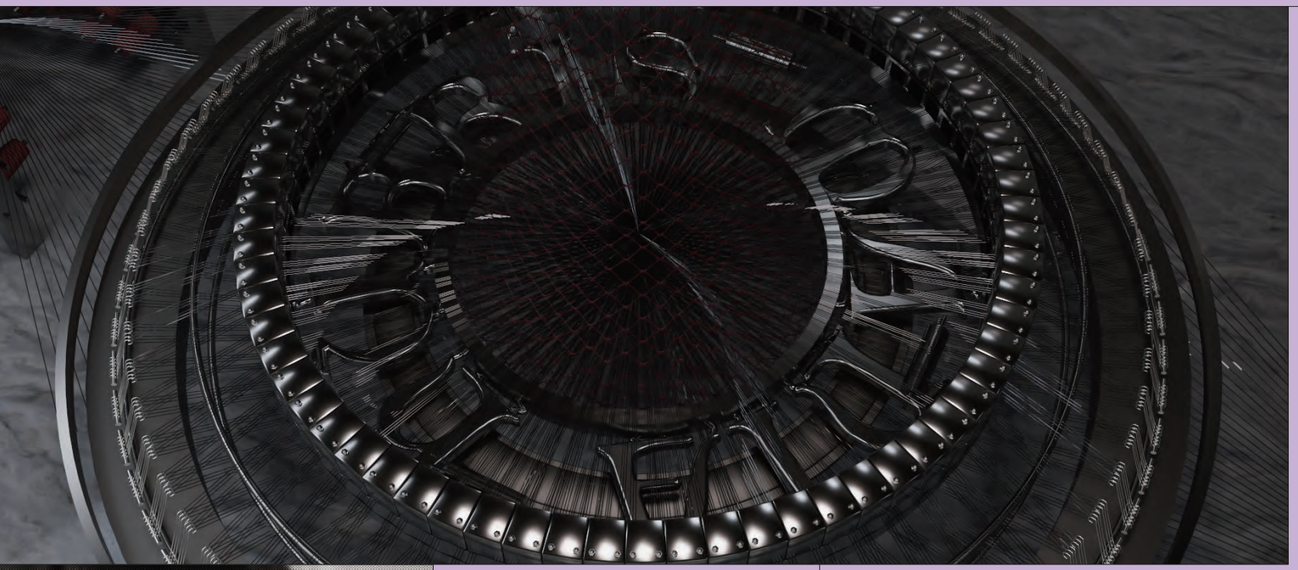
사운드아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사운드가 가진 두드러진 특성, 예컨대 시간성·현장성·비물질성·비시각성 등을 각 작업의 메시지에 맞게 활용하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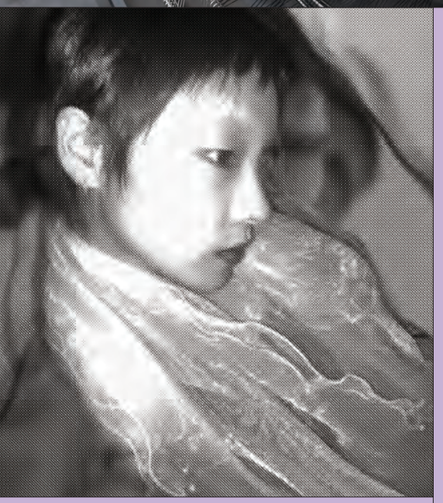
2022년 리서치에서 2023년 쇼케이스까지 유지된 것과 바뀐 것
누군가 전달했지만 전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알고 싶다는 마음이 동일하다. 다만 작품에서 표현하는 방식엔 변화가 생겼다. 2022년 리서치 단계에서 '오디오 레터 교환 워크숍'을 진행했고, 여기서 참여자들은 언어 없이 사운드를 교환하며 소통을 시도했다. 사운드 소통은 정서나 분위기를 교환하기 때문에 모호한 의사소통 방법이라고 생각해왔는데, 문득 이 모호함이 사운드 소통뿐만 아니라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에도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스럽게 2023년 쇼케이스에서는 언어 소통에서의 모호함, 즉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들이나 소통의 과정에서 생기는 어긋남을 앰비언스로 표현해보고자 했다.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일상에 편재해 있으나 보이지 않는 사회 권력을 감각화해 주로 시각예술로 표현해왔다. 언어 역시 일종의 사회적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은 우리가 언어에 갖고 있는 믿음과 언어가 담아내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고 미학적으로 풀어내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김수아와 이번 작업 역시 함께했다.

작품을 관람할 관객에게 한마디
좀처럼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사운드 간 미묘한 어긋남에 주목해주시기를.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3 〈사이렌의 침묵〉
8월 18일부터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문래예술공장 1F 갤러리M30





송민경
〈Ate〉

〈Ate〉는 서바이벌 호러 게임을 라이브 퍼포먼스로 선보이는 작품이다. 그리스 신화 속 불공평한 경쟁 구도에 놓인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관계에서 플롯을 가져와 비틀었다. 가상의 시공간에서 아라크네는 직조에 대한 집착과 인정 욕구로 인해 섭식장애와 만성 소화불량을 갖게 된 인간으로, 아테나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와 같은 베틀 기계로 분해 그런 아라크네를 먹기 위해 소리로 유혹하는 역할로 설정했다. 플레이어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파동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생존하기 위해 감각에 기반해 게임을 컨트롤해야 한다.

공동 기획과 연출을 맡은 김혜령과 함께 각각 게임의 사운드와 비주얼을 조작하며 신(포식자)과 인간(피식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조이스틱을 밀고 당기거나 페달을 밟는 등 게임 컨트롤 인터페이스를 구동하는 행위는 신화 속 아테나와 아라크네의 직조 경쟁, 게임 속 플레이어의 공수 전환을 위한 경쟁 또는 두 퍼포머 간 매체 경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플레이어가 마침내 세 개의 레벨을 통과하며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소리의 근원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신적인 위장술의 베일은 점점 벗겨지고, 그제야 관객은 자신들이 무대의 배 속에 들어와 있음을 직감한다.

작품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욕지기 또는 토할 것 같은 메스꺼운 느낌.

사운드아트를 시작한 계기 대학 졸업 후 영상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다. 구조화된 형식에 맞춘 영상을 제작하는 곳이었고 그러다 보니 조금 더 자유로운 스토리텔링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 코로나 이후 유럽에서 현대미술·퍼포먼스·음악·클럽문화 등을 경계 없이 넘나드는 많은 작품을 보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나에게 전환점이 되었다. 이후 사운드 디자인 레슨을 받으며 본격적으로 음악·사운드아트·공연 기획 일을 시작했다.

↑ 게임 콘셉트 스틸컷 ©김혜령

사운드아트 작업에서는 과정 자체에 몰입하는 경험이 제일 즐겁다. 결과물도 물론 중요하지만, 소리를 직접 만들고 가공하는 과정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2년 리서치에서 2023년 쇼케이스까지 유지된 것과 바뀐 것 크게 바뀐 점 하나를 꼽자면 매체를 웹에서 게임으로 옮겨온 것. 매체가 바뀌면서 기존의 논리적이고 직설적인 내러티브를 현재 버전의 은유적이고 시적인 내러티브로 바꿨다.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신체적 트라우마를 동물적으로, 페티시즘으로 혹은 사변적 픽션과 내러티브로 표현하는 것. 트라우마를 욕망과 엮어 도덕적 판단이 불가능하게끔 플롯을 비튼 후 자극적인 방식으로 재현했을 때 오는 해방감이나 카타르시스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의 유해한 경험과 닮았지만 동시에 현실과는 무관하게 흘러가는 가짜, 허구의 시공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치유적인 힘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음악·사운드와 공연으로 이런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작품을 관람할 관객에게 한마디
잘 먹었습니다.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3 〈Ate〉
8월 18일과 19일 오후 8시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유영주
〈괴물소리: 갈라진 혀〉

2021년 난치성 통증증후군을 진단받았다. 아픈 여성으로 살아가며 병원에서조차도 고통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일이 어렵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느낀 이 답답함이 어쩌면 괴물이 느끼는 마음과 비슷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고통은 언어가 아닌 신음과 울음소리로, 비명과 침묵으로 대체돼왔다. 앞선 세대의 여성들도 내가 '괴물소리'라는 새로운 언어를 떠올린 것 같이 어떤 방식을 사용해서라도 본인의 고통을 언어화하려는 시도를 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 시도를 계승하며 이 작품을 통해서 아픈 여성 집단에 새로운 소통 수단을 제안한다.

〈괴물소리: 갈라진 혀〉는 '자음+모음' 형태의 기존 언어 체계를 해체하고 '사운드+모음' 형식의 새로운 언어로 선대 여성들의 텍스트를 독해한다. 또한 자체 제작한 악기를 통해 새로운 언어 '괴물소리'를 신체적으로 번역함으로써 선대 여성들과 내가 느낀 고통의 잃어버린 의미를 되살리고자 했다. 한 여성 괴물이 자신의 언어를 주체적으로 만들면서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발화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공연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한 줄로 설명한다면
고통-소리언어 낭독극

사운드아트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사운드를 중심에 놓는 것. 기발한 아이디어나 형식이 포함되더라도 작업의 '사운드'가 좋을 때까지 다듬는 편이다.

2022년 리서치에서 2023년 쇼케이스까지 유지된 것과 바뀐 것
'괴물소리'라는 언어 형식이나 큰 주제는 바뀌지 않았다. 2022년에는 리서치를 통해 괴물들을 위한 언어를 만드는 오디오비주얼 작업을 했다면, 2023년에는 직접 제작한 웨어러블 악기로 라이브 공연을 선보이며, '고통의 불가능성'에 대해 좀 더 폭넓게 이야기해보고자 했다. 또한 쇼케이스를 선보이면서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업하게 된 것도 큰 차이점이다. 텍스트 에디터 김동휘, 비주얼 총괄 록수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현재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는
불쾌, 불소통의 주제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괴물'의 개념이나 추함, 사회의 터부, 사람들이 보기 꺼리는 것들이나 매끄러움 이면에 존재하는 것들로 구체화하게 됐다. 내가 다룰 수 있는 툴의 범위를 넓혀서 궁극적으론 다층적인 감상 경험을 제공하고 싶다. 현재 테크노 프로듀서·디제이 'amu(아무)'로 활동하고 있는데, 새로운 전자음악 앨범을 내려는 바람도 있다.

작품을 관람할 관객에게 한마디
퍼포머가 내는 '괴물소리'가 무슨 뜻인지 열린 마음으로 느껴주시길.

사운즈 온 쇼케이스 2023 〈괴물소리: 갈라진 혀〉
8월 25일 오후 8시와 26일 오후 5시
문래예술공장 2층 박스씨어터

불철주야 예술 창작의 성지, 금천예술공장 14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

9월 첫째 날, 예술가의 작업실이 열린다. 14년 전인 2009년, 서울 금천구 독산동의 옛 인쇄공장에서 시각예술 전문 창작 레지던시로 거듭난 금천예술공장에서 말이다. 정해진 기간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작업 공간을 예술가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레지던시의 특성상 작업실을 상시 개방할 수는 없지만, 일 년에 한 번 '오픈스튜디오'라는 이름으로 모두에게 열린 예술의 장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2023년 금천예술공장 오픈스튜디오는 14기 입주 시각예술가 16인(고등어·기슬기·김겨울·김방주·김인배·박현정·신미정·오묘초·윤미류·이우성·이은솔·이주리·임영주·정희민·한상아·함혜경)의 개인 작업실을 개방하는 것은 물론, 전시, 퍼포먼스, 토크 프로그램, 영상 스크리닝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커다랗게는 시각예술 장르로 묶여 있으나 사진·평면·입체·영상(미디어아트) 등 각자의 표현 방법을 달리하는 만큼 '예술가의 방' 프로그램을 통해 그간 궁금했던 예술 창작 과정과 예술가 개개인의 방식으로 구성한 작은 전시실을 만끽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또한 예술가의 기존 작업 방식에서 벗어난 기술·주제 실험을 장려하는 예술가 협업 프로젝트 과정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망한 전시는 어떤 시도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는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

개인 작업실과 대형 전시장 외 공간에서도 행사는 이어진다. 시각예술가의 작업과 관련한 여러 주제를 입주예술가들과 미술계 전문가의 대화로 탐구하며 그 과정을 관람객과 공유하는 '토크 프로그램', 예술가 작업의 연장선에 있지만 퍼포먼스 형태로 변주돼 보는 이들에게 다양한 물음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오프닝 퍼포먼스'와 '클로징 퍼포먼스' 또한 관람객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일반 시민의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준비된 토크 프로그램은 매일 1회, 총 3개 그룹의 토크로 진행되며, 금천예술공장 인스타그램(@art.space.geumcheon)을 통해 8월 중 사전 접수와 주제별 질문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예술가와의 대화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금천예술공장의 소식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예술가의 창작 과정은 물론 예술가 개인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레지던시 생활을 엿볼 수 있도록 기획된 입주작가 개별 영상이 행사 기간 상시로 상영되는 '창고동 스크리닝'과 오픈스튜디오에 방문한 관람객이 금천예술공장 입주예술가의 대표 이미지가 인쇄된 엽서를 선택해 예술가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To. Artist_예술가에게 띄우는 엽서'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저마다의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고 다양한 매체로 표현하는 예술가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을 새로운 감각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런 경험을 선사해주는 예술가에게도 관람객이 띄우는 한 줄의 글이 새로운 울림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서울아트위크와 프리즈 서울에 발맞춰 문을 여는 2023년 금천예술공장 14기 입주작가 오픈스튜디오는 9월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오후 1시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 예정이다. 고요하게만 보이던 커다란 회색 건물 안에서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예술공장의 면면을 살펴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무더운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쿼드 여름페스타

2022년 7월 개관한 대학로극장 쿼드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예술가와 관객이 함께, 새로운 극장의 가능성을 열고 있다. 무대와 객석을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어 다양한 예술적 실험이 가능한 가변형 블랙박스 극장으로, 기존 극장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다채로운 시도와 폭넓은 작업이 가능하다.

올해 대학로극장 쿼드에서는 무한한 영감과 새로운 예술의 가능성을 실험하며 시대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쿼드 기획 프로그램 '쿼드 초이스'에서는 예술성과 인지도를 모두 갖춘 예술가와 협업해 다채로운 작품을 소개한다. 앞서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해 독특한 무대 미학을 선보인 적극 연출 〈다페르튜토 쿼드〉, 이어 대학로극장 쿼드가 정의하는 K-전통, 무토×입과손스튜디오 〈두 개의 눈〉과 서도와 은미 〈만병통치樂〉 등 화려한 컬래버 무대는 연속 매진 사례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또한 안성수·박호빈·안수영 등 스타 안무가가 선보이는 감각적인 움직임의 향연을 쿼드에 펼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쿼드 초이스'는 계속해서 레퍼토리를 확장한다. 극장에서 잠을 경험하는 황수현 안무 〈Zzz〉와 국내 초연으로 기대를 모으는 신유청 연출 〈더 웨일〉, 구조주의 연극의 정수를 보여줄 김우옥 연출 〈겁괴기담〉, K-신파의 현재를 고찰하는 정진새 연출 〈신파의 세기〉 등 '보는' 것을 넘어 '감각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2023년 대학로극장 쿼드가 주목하는 다원·무용·전통·연극 등 다양한 작품을 기획·제작해 관객에게 선보이며 공연계의 새로운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음악적 개성이 뚜렷한 다섯 팀의 릴레이 공연

〈쿼드 여름페스타〉는 올해 처음 시도하는 시즌형 공연 프로그램이다. 가변형 블랙박스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아티스트의 무한한 상상력이 이번 무대를 통해 연출된다. 전석 스탠딩으로 진행되는 〈쿼드 여름페스타〉는 딱딱한 객석에 앉아 정면의 무대를 바라보는 일반 형태의 극장을 탈피하고, 무대와 객석을 허물어 아티스트와 관객의 경계가 없는 무대를 구성한다. 일반 극장(프로시니엄 무대, 고정형 객석)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색적인 무대 형태와 더불어 관객은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의 퍼포밍을 아주 가깝게 접할 수 있다. 쿼드만의 자랑, 최신식 스피커의 대용량 입출력을 통한 볼륨 넘치는 사운드는 관객들의 심장과 온몸을 자극한다.

이번 〈쿼드 여름페스타〉에서는 일렉트로닉(전자음악)·얼터너티브·퍼포밍 등 음악적 개성이 뚜렷하고 독보적인 행보를 걷는 아티스트로 라인업을 구성해 8월 24일부터 4일간 총 5개 팀의 무대를 릴레이 형식으로 선보인다. 그동안 야외 페스티벌을 비롯한 무대에서 이들의 색깔을 짧게만 맛봐 아쉬웠던 팬들은 이번 단독 공연을 통해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아티스트의 숨은 매력과 폭발적인 열정을 감각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과 신선함을 안겨주는 CIFIKA (씨피카), 일렉트로닉 뮤직 장르의 독보적인 발자취를 그려나가는 IDIOTAPE(이디오테잎), 몽환적이고 청량한 TRPP, 젊고 용감한 사운드 Silica Gel(실리카겔),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조합해 유쾌한 사운드를 선보이는 ADG7 (악단광칠)까지! 극장뿐만 아니라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야외 공간(1층 스퀘어, 2층 프롬나드 등) 곳곳에 활력을 불어넣어 극장 안팎에서 음악적 에너지를 모두 즐기도록 할 예정이다.

#1. CIFIKA, 24일 오후 8시

〈쿼드 여름페스타〉 첫 번째 무대를 장식할 씨피카는 드넓은 풍경과 정신적 신념, 무한한 기억을 관통하는 '광활함'을 음악적으로 표현한다. 음향과 시각적 표현에 능숙한 일렉트로닉-팝 아티스트로, 섬세한 작곡 실력을 토대로 삼아 개성 넘치는 음악 세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솔로가 아닌, 앙상블 세션과 함께 새로운 라이브 무대를 선보인다. 무한한 상상력과 독보적인 비주얼 무대를 연출하는 씨피카의 무대가 기대된다.

#2. IDIOTAPE, 25일 오후 8시

이디오테잎은 디구루와 제제의 신시사이저가 만든 사이키델릭한 전자음과 디알이 쏟아내는 강렬한 드러밍으로 대중과 평단을 단번에 매료시킨다.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댄스&일렉트로닉-음반' 부문을 2회 수상하는 등 국내 유일무이한 위치를 유지해온 이들은 이번 페스타에서 새로운 무대 형태로 사운드를 펼쳐놓는다. 북미 최대 쇼케이스 페스티벌 SWSX, 영국 글래스턴베리, 독일 리퍼반, 일본 서머소닉 등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초청받는 이디오테잎의 독창적인 멜로디와 깊고 강력한 사운드가 선사하는 극도의 해방감을 느껴보자.

©이홍상

#3. TRPP, 26일 오후 3시

등장부터 큰 주목을 받았던 국내 슈게이징 스타 밴드 TRPP는 따듯한 감성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윤지영(치치 클리셰)과 유쾌한 밴드 일로와이로의 기타리스트 강원우(후루카와 유키오), 바이바이배드맨의 정봉길(엘리펀트 999)로 구성, 별명(부캐)을 사용하며 활동하는 프로젝트 그룹이다. 몽환적이고 혼탁한 사운드를 겹겹이 쌓아 올리며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블랙박스에서 느껴지는 고요함과 광활함이 그들의 사운드를 통해 사방으로 퍼지는 황홀한 경험에 도달하게 된다.

쿼드 여름페스타 QUAD SUMMER FESTA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전석 5만 원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3시와 8시, 일요일 오후 3시
대학로극장 쿼드

*공연 및 무대 운영 등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Silica Gel, 26일 오후 8시

밴드 실리카겔은 김한주(건반·보컬), 김춘추(기타·보컬), 김건재(드럼), 최웅희(베이스) 4인으로 이뤄진 밴드다. 실리카겔은 2016년 10월 발매한 정규 앨범 〈실리카겔〉로 당차게 인디신에 등장했고, 한국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을 포함해 세 번의 신인상을 받았다. 뒤이어 발매한 〈Desert Eagle〉과 〈NO PAIN〉으로 밴드 음악에 새로운 흥행을 일으켰으며, 신인상 수상 후 2022년과 2023년에도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 모던록-노래'를 연속 수상했다. 다채로운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구축해낸 고유의 사이키델리아가 특징이며, 폭발적인 에너지를 응집한 라이브 퍼포먼스로 새롭고 용감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며 현재 가장 '핫'한 밴드가 됐다. 실리카겔이 실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오직 쿼드에서 만나볼 수 있다.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5. ADG7, 27일 오후 3시

'뉴욕타임스', 'NPR 뮤직' 등 전 세계 관계자가 극찬하고, 국가 불문 장르 불문 러브콜을 받는 강력한 밴드 악단광칠은 세계 최대 월드뮤직 마켓인 WOMEX 19, globalFEST를 통한 성공적인 세계 무대 데뷔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활발히 종횡무진하고 있다. 황해도 옛 음악을 원천으로 다양한 음악적 창작을 시도하며 전통과 현대를 절묘하게 엮어낸다. 떼창과 떼춤을 부르는 현대적 감성 악단 악단광칠은 강렬하게 몰아치는 사운드로 쿼드 여름페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다.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쿼드 여름페스타〉는 7월 28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극장 쿼드 누리집(quad.or.kr)에서 예매할 수 있다. 날카로운 비트와 몽환적 멜로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아티스트 혹은 동시대 국내 밴드의 독보적 사운드를 경험하고 싶다면 〈쿼드 여름페스타〉에 주목하자. 쿼드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독특한 무대 연출과 최신식 입체 사운드로 잊을 수 없는 한여름밤의 공연을 만나게 될 것이다.

예술하는아이다

SINCE

2017년 8월

ABOUT

아이와 어른, 장애와 비장애, 예술과 우리의 일상을 연결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과 만나는 작업으로 세대, 지역, 가족에 관한 새로운 질문을 탐구하고 있다. 드라마를 기반으로 창작과 교육을 연결하고자 하는 예술가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예술의 확장된 역할과 가능성을 모색한다.

MAJOR WORK

〈사회를 마주하는 N개의 문화예술교육: 경계없는시민극장 프로젝트〉, 〈계절에 관한 명상〉, 〈창의적인 연극놀이: 그림책 상상극장〉, 1인극 〈겨울이 오고 있다〉, 〈꿈꾸는 꿈: 물고기의 기억〉

MEMBER

이영실(대표), 배규림, 변승채, 배영은, 조경희, 고주원, 김민서, 안경호, 권서의, 김명진(이하 협력), 최윤성, 송연숙

IN 2023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에 선정돼 다양한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10월 14일 〈광장에서 연극하자_느린학습자 청년의 이야기와 작은 공연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아하콜렉티브

SINCE

2018년 9월

ABOUT

아하콜렉티브는 전통·아날로그와 같은 연속된 관점을 디지털 방식으로 변환해 미디어 기반 서사 방식을 탐구하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끊임없이 대안을 탐색하며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작품 안에서 움직임의 반복성과 상징성을 띤 매개로 표현한다. 작곡가·시각예술가·연주자·개발자 등 다양한 예술가와 협업을 추구한다.

MAJOR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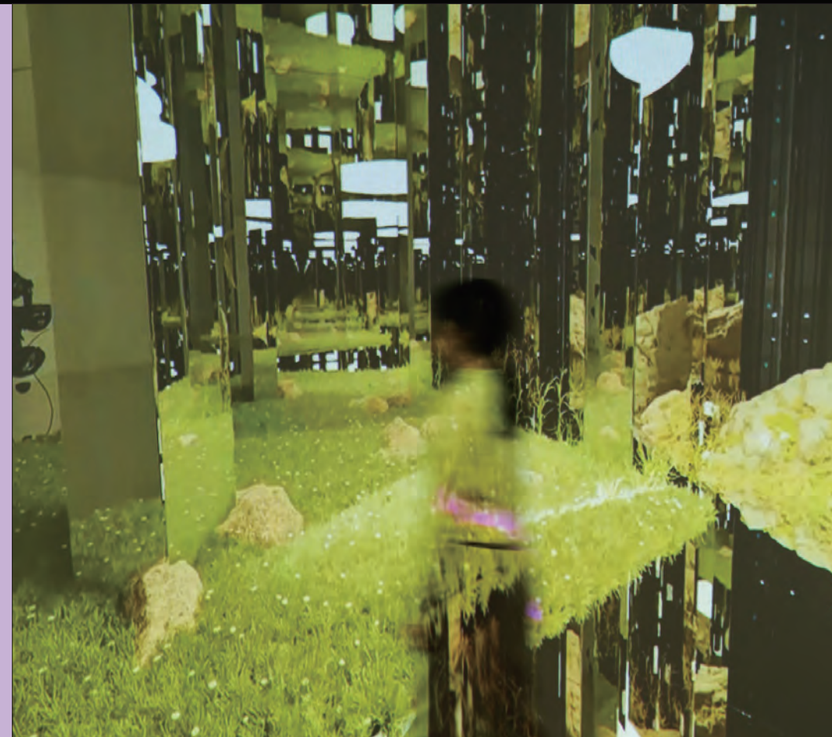
〈0-Phasing-1〉, 〈Dialing〉, 〈Spanning〉

MEMBER

김샛별, 박주애, 정혜리, 최지원

IN 2023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 홀에서 〈Up-Down Counter〉를 공연한다. 9월 19일부터 24일까지 플랫폼엘 컨템포러리 아트센터에서 대표 레퍼토리 〈0-Phasing-1〉을 선보이고, 10월과 11월에는 〈Shining〉 공연을 앞두고 있다.



‘단호한 지휘자’ 에버 6의 국립국악관현악단 데뷔기

‘로봇이 지휘자를 대체할 수 있을까?’ 단순하고도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무대 위에 펼쳐졌다. 6월 30일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열린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Ⅳ 〈부재 不在〉는 지휘자의 부재를 통해 역으로 지휘자의 존재와 진정한 가치를 질문하는 과정이었다. 지휘자 최수열과 로봇 지휘자 에버 6가 따로, 또 같이 호흡을 맞춘 독특한 무대는 어떻게 완성됐을까? 국립국악관현악단 채인영 책임프로듀서, 정선미 프로듀서와 만나 그 이야기를 들어봤다.

시작은 ‘지휘자가 꼭 있어야 할까?’ 하는 조금은 발칙한 발상이었습니다. 국악기로 편성된, 관현악 장르를 다루는 단체라는 국립국악관현악단의 특성 때문에 지휘자 찾기가 항상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휘자가 바뀔 때마다 단원들이 겪는 어려움이 가장 컸고, 그것은 공연의 완성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도 항상 고민인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해 보기로 했습니다. 공연의 제목인 〈부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존재를 없앰으로써 이 존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재발견해보고자 했어요. 공연을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결국은 사람’이었습니다.

공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AI 기술과 로봇공학은 서로 다른 영역의 기술이고, 공연은 AI가 아니라 로봇공학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점이죠. 가장 먼저, 로봇 지휘자를 위해 여러 기업과 연구소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했다고 알려진 카이스트의 ‘휴보’ 연구진을 비롯해 네이버랩스, 현대자동차 등등… 그리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연이 닿았습니다. 2009년 〈엄마와 함께하는 국악보따리〉를 통해 국립국악관현악단과 함께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어요. 이때 로봇 ‘에버’가 소리꾼으로 무대에 출연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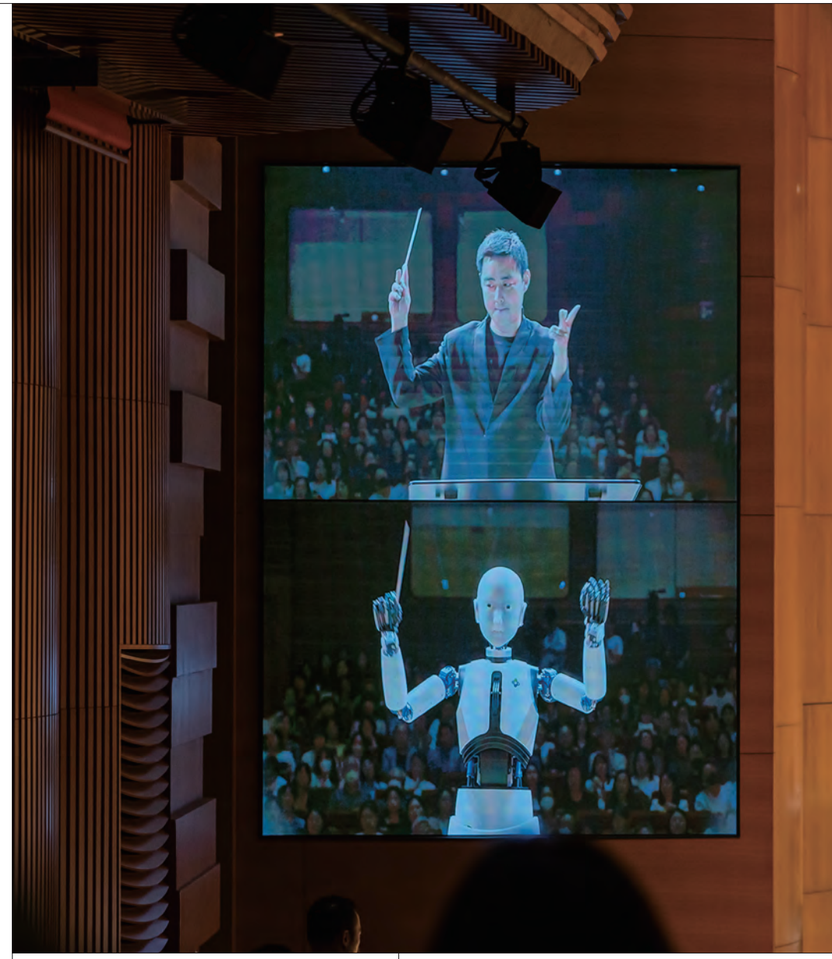
2021년 하반기에 기획을 시작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시작했고,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해 2023년 6월 무대에 서기까지 8~9개월가량 소요된 것 같아요. 처음 기대한 것과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한 지점은 로봇 지휘자인 에버 6가 스스로 듣고 판단하는 것이 불가하다는 점이었어요. 에버 6가 구현하는 동작(모션)은 사전에 입력된 정보에서만 출력할 수 있죠. 지난해 지휘자 프로젝트로 인연을 맺은 정예지 지휘자의 동작을 모션 캡처하고, 박자마다 최적화하는 과정을 거쳐 ‘에버 6’가 완성됐습니다. 로봇의 지휘 기술이 얼마나 완성도 있게 구현될지 걱정이 있었기에, 이를 보완할 공연 요소를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로봇과 사람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비시켜서 지휘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예술 영역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반증하고 싶었습니다. 로봇 지휘자를 세우지만, 오히려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사람만의 영역이 무엇인지 탐구했죠.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에 함께한 최수열 지휘자가 이런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보다는 로봇과 사람이 협업하는 모습을 비추는 건’ 어떠냐고요. 공연의 주제는 대립에서 출발했지만 우리는 협업하고 상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걸 보여주면 좋겠다는 거죠.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박사들도 ‘로봇이란 인간을 넘어서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수반되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공연의 2부에 로봇과 사람 지휘자가 함께 지휘하는 곡(손일훈 작곡 음악적 유희 시리즈 ‘감’)을 배치한 것은 그러한 의도였습니다.

실제 로봇의 지휘 실력은 어떠했을까요? 개개인의 평가가 다르겠지만, 그야말로 ‘참 기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정확한 박자, 일정한 속도, 오류 없는 움직임, 감정의 동요가 없는 일관성, 그야말로 ‘단호한 지휘자’죠. 로봇 지휘자가 박자를 정확히 제시할 것이라는 믿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연주자가 실수하거나 변수가 생겼을 때 로봇 지휘자는 그 상황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연주자들에게는 스스로를 믿고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어요. 로봇 지휘자에겐 리더의 능력이 없으니까요. 또 로봇과 소통이 불가하니 단원들끼리 서로 더 맞추고, 더 많이 연구하고, 악보도 한 번 더 보게 되더군요. 한 분은 “쟤(에버 6)를 따라가느라 우리가 오히려 더 맞추게 되더라”고 하시더군요. 사람 연주자의 연습과 발전을 돕는 역할은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부재〉는 초기 단계부터 최수열 지휘자와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완성해나갔습니다. 로봇과 사람 지휘자가 함께하는 시도를 위해 손일훈 작곡가에게 신작을 위촉했고, 그렇게 완성된 음악적 유희 시리즈 ‘감’이 오선보가 없는 즉흥 음악이었던 것도 또한 파격이었죠. 무대 위에서 선율과 리듬을 어떻게 선택해 표현할지는 전적으로 연주자에 주어진 부분이었고, 사운드를 어떻게 조합할지는 사람 지휘자에게 달렸으며, 그 와중에 규칙성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로봇 지휘자의 역할이었고요. 이 곡이야말로 〈부재〉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연주자와 교감하는 최수열 지휘자의 표정과 시종일관 무표정으로 정확한 박자를 주는 로봇의 모습을 비교해보는 재미가 관객에게도 생생하게 전달됐을 것이고요.

이번 공연이 끝난 뒤, 생각하지도 못한 많은 공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로봇과 함께하는 공연을 다시 기획할 계획이 없습니다. 로봇공학이 대중이 기대하는, 더 높은 기술 수준에 다다르지 않는 이상은요. 오히려 우리는 이 공연을 통해 기획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국악관현악의 태생적 한계를 어느 정도 돌파했다고 자평합니다. 듣는 음악으로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넘어서, 예술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관객에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전달됐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 아닐까요? 무엇보다 이 도전과 기발한 기획을 실제 무대에까지 담아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이 새로운 음악에 도전하고 연주 실력을 꾸준히 발전시킨 국립국악관현악단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순서로 들려준, 사람과 사람이 함께할 때만 만들어 낼 수 있는 감동적인 연주는 하루 이틀 맞춘 호흡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 국립국악관현악단 관현악시리즈 Ⅳ 〈부재〉 중 지휘자 최수열과 에버 6가 음악적 유희 시리즈 ‘감’(작곡 손일훈)을 함께 지휘하는 모습

← 아르농쿠르 부부의 오스트리아 집

예술가가 수집한 예술

예술가의 컬렉션은 이들의 사적인 세계를 엿볼 수 있는 창과 같다. 특히 무대나 공적인 자리에서만 예술가와 만나는 대중에게, 예술가의 개인적인 취향과 안목이 묻어나는 컬렉션은 이들의 삶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유명 예술가의 컬렉션은 크리스티나 소더비 같은 대형 경매사에서도 제법 큰 규모로 기획된다. 최근에는 크리스티에서 열린 오스트리아의 유명 지휘자 니콜라우스 아르농쿠르Nikolaus Harnoncourt, 1929-2016와 바이올리니스트 알리스 아르농쿠르Alice Harnoncourt, 1930-2022 부부의 컬렉션 경매가 화두였다. '예술가가 수집한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부부가 63년에 걸쳐 모은 고악보와 그림, 공예품 등이 출품됐다. 거장 화가들의 작품 40점은 7월 6일 현장 경매가 이뤄졌으며, 나머지 공예품과 고서 경매는 6월 30일부터 7월 14일까지 온라인에서 진행됐다.

생전 지식과 아름다움, 그리고 음악에 둘러싸인 삶을 살기를 바랐던 아르농쿠르 부부는 "단순한 수집가가 아니라 (그들이) 소유한 예술품을 직접 사용하고,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 잘츠부르크 근교의 집 현관을 열면 르네상스 시기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조각이 걸려 있으며, 플랑드르 대표 화가로 꼽히는 얀 브뤼헐Jan Brueghel de Oude의 꽃 정물화와 바로크

미술의 탄생을 이끈 한스 폰 아헨Hans von Aachen의 〈성 세바스티안의 순교〉가 나란히 걸려 있다. 그 아래 16세기 베네치아의 길드에서 조각한 의자 한 쌍이 고풍스러운 자태를 풍기고, 맞은편 피아노 위에는 루벤스Peter Paul Rubens의 〈가시 면류관을 쓴 그리스도〉 습작이 걸려 있다.

딸 엘리자베스는 "부모님은 매일 잠들기 전 집안을 거닐며 작품 하나하나를 감상했다"고 회고했다. 컬렉션은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하는 작고 섬세한 예술품과 책으로 이뤄진다. 이들의 컬렉션에는 르네상스부터 5세기에 걸친 역사적인 예술 자료, 특히 15~17세기 유럽인의 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작품이 많다. 시대악기를 사용해 바로크와 고전음악을 연주하는 콘첸투스 무지쿠스 빈Concentus Musicus Wien을 공동으로 창단하고 시대악기 연구에 골몰해온 부부의 삶을 증명하는 듯하다.

컬렉션은 아르농쿠르의 음악적 삶과 개인적인 관심을 양분하듯 크게 악보와 고서, 공예품과 가구로 나눠진다. 목공에 관심이 많던 아르농쿠르는 지휘자가 되기 전엔 목공예가가 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가구는 이탈리아에서 제작된 고가구들이 주를 이룬다. 16세기 베네치아 공방에서 제작된 마욜리카 도자기 등 르네상스 시대 공방 작품에 관심이 많았다. 그림은 얀 브뤼헐과 루벤스에서 느껴지듯 플랑드르 화파, 특히 길드의 작품을 선호했다.

고서·고악보 섹션은 마니아들을 불러 모았다. 아르농쿠르는 베토벤이 자필로 박자표와 빠르기를 남긴 교향곡 9번 '합창'의 초판1826을 포함해 베토벤 교향곡의 초창기 악보를 여럿 모았다. 베토벤 음악을 철저히 당시의 방식으로 연주하기로 정평이 난 그는 이 악보들에서 단서를 얻었을 것이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여러 권의 모차르트 소나타 곡집을 비롯해 라모의 비극 오페라 〈조로아스트르〉 초판도 있다.

베토벤 9번 초판만큼이나 관심을 끈 것은 르네상스 음악학자 후고 슈페히트스하르트Hugo Spechtshart가 쓴 14세기의 음악 논문 'Flores Musicae' 초판. 최초의 목판 악보를 비롯해 최초의 계명창 교육법인 '귀도의 손' 삽화 등이 포함된 귀한 서적이다.

매일 일정한 간격으로 읽게 돼 있는 중세의 기도집이나 필사본 『시간의 책』(15세기 중반 추정), 달마다 달라지는 앤트워프 모습을 담은 야코프 그리머Jacob Grimmer의 풍경화에서는 아르농쿠르가 과거의 시간 개념에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음을 보여줬다. 이번 컬렉션을 통해 대중은 아르농쿠르 부부의 시대적 관심사와 연구 흔적을 좇아볼 수 있었다.

이렇듯 예술가의 컬렉션은 예술가를 알아가는 또 다른 통로가 된다. 지난 2월 프랑스 아르퀴리알에서 열린 작곡가·지휘자 피에르 불레즈Pierre Boulez, 1925-2016의 컬렉션 경매에서는 프랑스 현대음악계를 선도적으로 이끈 불레즈가 삶 속에서 얼마나 현대 예술, 특히 공감각적 표현에 경도되었는지 보여줬다. 파울 클레Paul Klee 작품의 조형미와 음악성을 연결하는 책까지 집필할 정도로 그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던 만큼, 클레의 수채화를 비롯해 각국의 언어로 출판된 그의 이론서 'The Theory of Modern Art'도 포함됐다. 그 외에도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작품 등 청각을 시각으로, 시각을 청각으로 옮겨온 예술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었다.

지난 3월과 4월 크리스티에서 열린 안무가 롤랑 프티Roland Petit, 1924-2011와 지지 장메르Zizi Jeanmaire, 1924-2020 부부의 컬렉션에는 시대를 풍미한 무용계·사교계 명사로서 이들의 모습이 잘 담겨 있었다. 1940년 파리 오페라 발레에 입단해 1998년 마르세유 발레 감독으로 은퇴하기까지 60여 년간 프랑스 발레계에 큰 족적을 남긴 롤랑 프티와 무용수로 시작해 영화·뮤지컬 배우 등 여러 활동을 펼친 지지 장메르. 이들의 컬렉션은 무대를 만들며 만난 화가나 디자이너들과 관계를 간증한다. 니키 드 생팔Niki de Saint Phalle의 댄서 스케치, 장 콕토Jean Cocteau가 그린 〈롤랑 프티의 초상〉,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urent이 지지에게 보낸 스케치 쪽지들, 키스 해링Keith Haring의 〈롤랑에게〉 등등 컬렉션은 당시 예술가들의 교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실제 삶과 감정이 깃든 이들의 추억을 소유할 기회로 관심을 모았다.

↑ 오스트리아 종교 조각가 구겐비클러의 17세기 목조각(추정) 〈성 조지와 성 플로리안〉

←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 초판 악보

→ 17세기 독일 세공가 한스 야콥 바우어 1의 은제 맥주잔

↓ 16세기 베네치아 공방에서 제작된 마욜리카 도자기

2023 서울예술교육센터 청소년 융합예술 교육사업

아츠포틴즈 LAB

서울예술교육센터는 세상이 말하는 쓸데없는 짓이 1318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쓸모있는 경험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1318이 주체적 창작자가 되는 시간과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2023년 올해는 우리의 작업실: ✌️상하게, 자유롭게, 다체롭게

를 추구하는 4명의 *교육예술가와 함께합니다

* TA, Teaching Artist

서울문화재단 | 서울예술교육센터 ◆ 문의 02-3785-3196, artsforteens@sfac.or.kr

Contents

삶의 책장을 넘기며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동시대적 고전 읽기
무대에 펼쳐지는 '보편의 세계'
예술의 숨결이 공간에 깃들 때
보고 싶은 얼굴
산책엔 플레이리스트
가장 애틋했던 그 여름으로

illust ©slowrecipe

스스로가 한없이 작아 보일 때

손정승 『아무튼, 드럼』 저자

모든 프로그램의 처음 모습은 종이에 누운 활자이다. (…) 누군가가 쓴 한 장의 기획안이었다. →30쪽

시작이 미약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기획안 한 장에서, 스쳐 간 약속에서, 포기했다가 한 번만 더 해 보기로 한 순간에서 출발하는 이야기. 그것이 어떤 시작인지 모른 채로 그냥 한 사람들은 이렇게 답한다. "시작은 우연이었고요, 그냥… 그냥 했어요." 이런 이야기가 간절해질 때가 있다. 내 시작이 미약해 보일 때 그렇다. 한없이 쪼그라드는 그런 날, 나를 앉혀놓고서 잠시 시름을 잊게 해줬던 영상 콘텐츠를 만든 이들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왔단다. 이번엔 보는 게 아닌, 들어볼 차례다.

나와 친구들이 열광했던 〈스트릿 우먼 파이터〉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져준 드라마 〈D.P.〉, 엄마가 소녀의 마음으로 몰입하던 〈옷소매 붉은 끝동〉까지. 목차에는 알은체가 절로 나오는 프로그램부터 조금은 낯선 프로그램까지 총 10편의 타이틀과 제작진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다. 시청률이나 화제성을 따져 보면 결코 흥행작만 있다고 할 순 없는데, 과연 어떤 기준으로 모은 걸까? 분야도 다양하다. TV 예능, 유튜브 웹 예능, OTT 드라마, 사극, 현대극… 『기획하는 일, 만드는 일』은 서두에 분명하게 못을 박는다. 여기엔 성공의 필살기도 없고, 영웅담은 더더욱 아니라고. 의자를 바짝 끌어당겨 옆에 앉아보았다.

장수연 PD: 〈아무튼 출근!〉도 구석구석 손이 많이 간 게 느껴졌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텔럽telop을 보니 누군가의 손글씨던데, 이것도 의도가 담긴 디자인이었죠?

정다히 PD: 맞아요.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제작진들 역시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손글씨를 받아서 텔럽을 만들었죠. 본인 이름을 직접 써서 프로그램에 흔적을 남길 수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35쪽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프로그램의 좋고 나쁨은 출연자 개개인의 역량에 달렸다고 생각했다. 말실수라도 하면 개인을 매섭게 비난했고, 사려 깊음을 볼 땐 열렬한 팬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곰곰 생각해볼 일이었다. 완성된 창작물이 최종 승인이 나 세상에 내보여지는 건 제작진 또한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장수연 PD는 그 지점에 주목하는 인터뷰어였다. 영상에서 너무 자연스러워 눈치채지 못했던 사려 깊은 부분을 콕 집어냈고 현장에서 중시하는 역량에 관해 물었으며, 그들이 다 쏟아낸 에너지를 어디서 다시 채우는지 걱정 어린 질문을 건넸다. 인터뷰이들은 이제 막 성공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거나 최선을 다했지만 종영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 이도 있었는데, 이들은 저마다의 프로그램을 복기한 뒤 담백한 답을 내놓았다.

장수연 PD: 정 PD가 담은 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밥벌이, 특히 MZ세대의 밥벌이를 보여주자고 생각한 이유가 있나요?

정다히PD: 직업 혹은 직장에 대한 생각이 제일 많이 변한 세대가 MZ세대라고 생각했어요. (…) 가볍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무거운 이유들이 있어요. 항상 '다음 스텝'을 생각하고 있어야 하는 세대예요. →37쪽

이성준 PD: (PD로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말하는 데 힘을 다 쓰는 사람, 듣는 힘이 없는 사람은 PD로서 어렵겠구나 싶어요. →16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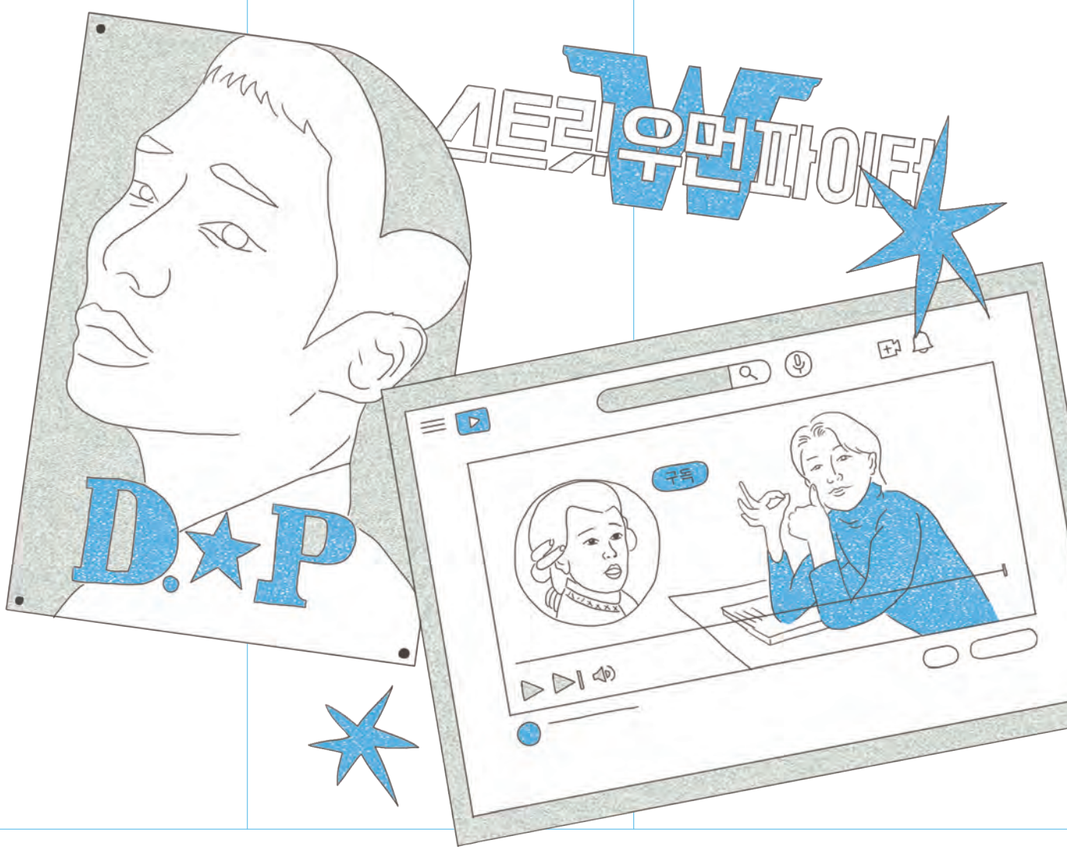
여기 실린 인터뷰이들은 미디어에서 꽤 전지전능한 모습으로 추켜올려진다.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겠으나 책에서 만난 모습만큼은 정말이지 그저 책임 있게, 끝없이 조율하고, 듣고, 밀고 나가는 '직업인'이었다. 함께하고 싶은 주인공을 묵묵히 3년을 기다려 프로그램을 런칭하고(〈공부왕찐천재 홍진경〉), 핀 조명의 각도를 바꿔 가수 옆 댄서들을 비췄으며(〈스트릿 우먼 파이터〉), 모두가 성공이라고 말했지만(〈작은 아씨들〉)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고민이 남았다고 말하는 직업인 한 명 한 명이 거기 있었다. 이들이 흔들리고 넘어진 지점은 오늘 내가 회사에서 휘청했던 지점과 똑같았다.

인터뷰집은 어떻게 보면 만들기 쉬울 것 같지만, 무척 난도가 높다. 그 까닭은 첫째, 인터뷰어의 질문이 좋아야 하고 둘째, 인터뷰어와 인터뷰이의 합이 좋아야 하며 셋째, 들은 이야기를 잘 풀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보기 드물게 세 가지가 적절히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한다. 업계 동료이면서 앞에 앉은 이에 대한 인간적인 애정을 가진 장수연 PD가 건네는 질문은 반복되지 않았고, 너무 멀지도 가깝지도 않아 보이는 관계 덕에 궁금했던 이야기와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충분히 들을 수 있었다.

어떤 프로그램은 바라봄을 앎으로 확장시킨다. 그 사람이 치르고 있는 힘든 싸움을 짐작해보고 싶게 만든다. →47쪽

오랜 시간 TV 앞을 떠나 있었다. 생업이 바쁘기도 했거니와 으리으리한 집과 홀쩍 떠나는 여행, 끝없는 맛집 투어 속에서 시대를 읽지 못한 유머를 구사하는 일부 몇몇을 바라보는 일에 지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작진은 그때나 지금이나 '최소한 어제보다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애써왔다.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점점 더 내 세계가 확고해짐을 느끼는 요즘, 나의 이 작은 세계에 좋은 창작물을 더 많이 들이고 싶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창작물이 내게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인터뷰에선 제작진이라고 뭉뚱그려 소개된 수많은 이들이 수년 뒤 더 책임 있는 자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낼지 기대되기 시작했다. 아무래도 아직은 모니터와 스크린에서 눈을 떼기엔 좀 아쉽다. 5분만 더 봐야지. 끝까지 보는 것도 꽤 괜찮을 것 같다.



무대에 펼쳐지는 ‘보편의 세계’

전영지 공연칼럼니스트·드라마터그

‘아주 유명하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 ‘고전’이라던가. 어린 시절 ‘청소년을 위한 문고판’으로 고전 읽기를 갈음했던 나는 공연장을 기웃거리는 성인이 되었다. 다들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막상 읽을라치면 녹록지 않은 고전 희곡 읽기의 지름길은 역시 공연이다. 게다가 이런 종류의 게으름은 패 보편적인지, 고전 희곡은 자주 공연될 뿐만 아니라 찾는 관객 또한 적지 않다. 특히 소위 ‘입시 희곡’이라고 일컬어지는 서양 고전 희곡의 공연장에는 연극·영화를 꿈꾸는 젊음들로 술렁인다. 더하여 이미 잘 알고 있는 옛이야기가 어떻게 무대화될지를 기대하며 극장을 찾고 또 찾는 성실한 관객 또한 늘 있으니, 연극 시장에서 고전은 ‘세일즈’가 되는 ‘희귀템’인 셈이다. 하여 2023년 봄, 서울의 주요 대극장 무대가 일제히 고전을 무대화한 것은 코로나 시대의 종식을 체감토록 하기 위한 묘책이었을지도 모른다. 다시 극장은 북적여도 괜찮으며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선언을 위한 고전의 무대.

물론 마케팅이 극장의 첫 고려였을 수는 있으나, 프로덕션의 주된 질문이었을 리는 없다. 공연을 준비하는 동안 연출가와 배우들,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묻고 또 물었을 질문은 ‘왜 지금 이 이야기인가?’였을 터. 그리고 그 답은 작품에 따라 프로덕션에 따라 달랐겠지만, 때때로 ‘왜 이 옛이야기면 안 되는가?’라는 반문이 제기됐을지도 모른다. 일견 동시대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듯한 그 이야기가 지금도 큰 울림을 준다는 감각을 발견하고 나누는 시간이 쌓여갔다면 말이다. 프로덕션이 가꾸는 그런 시간들은 옛이야기에서 동시대를 발견하거나 발명하여 고전을—도식적으로 ‘현대화’하는 대신—‘현재화’한다. 하여 이런 프로덕션들은 고전과 현재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이러저러한 장치를 도입하는 대신, 옛이야기를 친절하고 섬세하게 들려주는 무대를 마련하여 ‘보편적 이야기’의 존재를 상기한다.

기실 시간의 시험을 수없이 통과하고 오늘에 도착해 있는 고전의 위상은 종종 ‘보편적’이라는 단어로 설명된다. 인간의 삶에는 어떤 불변의 법칙이 존재하며, 그 법칙을 포착한 이야기가 고전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믿음이 고전을 지탱한다. 그러나 인간의 삶을 그토록 평평하게 만들어온 것이 정녕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르면, ‘보편성’의 위태로움은 이내 발각된다. 보편성이란 자명하게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 지구적 삶의 양태를 균질화해온 근대 보편화 기획의 산물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작은 유행병endemic을 지구적 범유행pandemic으로 퍼트리는 조건으로 기능한 글로벌 자본주의가 실어 나른 것은 바이러스뿐이 아니었던 것이다. 돈의 위기가 몸과 마음의 붕괴로 이어지다 종국에는 생의 파국으로 귀결되고 마는 그러한 ‘보편적 이야기’는 분명 자본주의의 소산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고전의 반열에 오른 작품이 바로 아서 밀러Arthur Miller의 『세일즈맨의 죽음』이다. 한때는 그 누구 못지않게 잘나가는 세일즈맨이었으나 현재는 해고 위기에 처해 있는 예순세 살 초로의 남자, 윌리 로먼Low man. 이 ‘낮은 사람’은 밀러가 극의 배경으로 삼았던 미국 대공황 직후에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된 1949년에도, 그의 말로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는 관객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지금 이곳에서도 ‘우리’ 시대의 ‘보통 사람everyman’으로 호명된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팔 수 없게 되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이 남자에게서 오랜 시간 수많은 독자·관객들은 하루하루 자기 자신을 팔아 살아가는, 그리고 그 ‘세일즈’에서 오는 모멸감보다 그 시간의 종결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더 큰 자아를 발견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49년에 창조된 시스젠더cisgender–헤테로섹슈얼heterosexual–백인–비장애인–남성 윌리 로먼이 ‘우리’ 모두와 공유하는 어떤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은 참으로 미심쩍다. 미국은 여전히 나열된 로먼의 정체성에서 하나라도 벗어나 있는 타자에게는 결코 친절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던가. 하물며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로먼 같은 사람만이 ‘보통 사람’의 권리를 누리는 국가였으니 말이다. 실제로 아서 밀러는 『세일즈맨의 죽음』을 미국의 ‘보통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영리하지만 슬픈 선택을 한 듯하다. 등장인물의 종교와 인종을 표백함으로써 독자·관객으로 하여금 로먼 가족을 무의식적으로 앵글로 색슨계 백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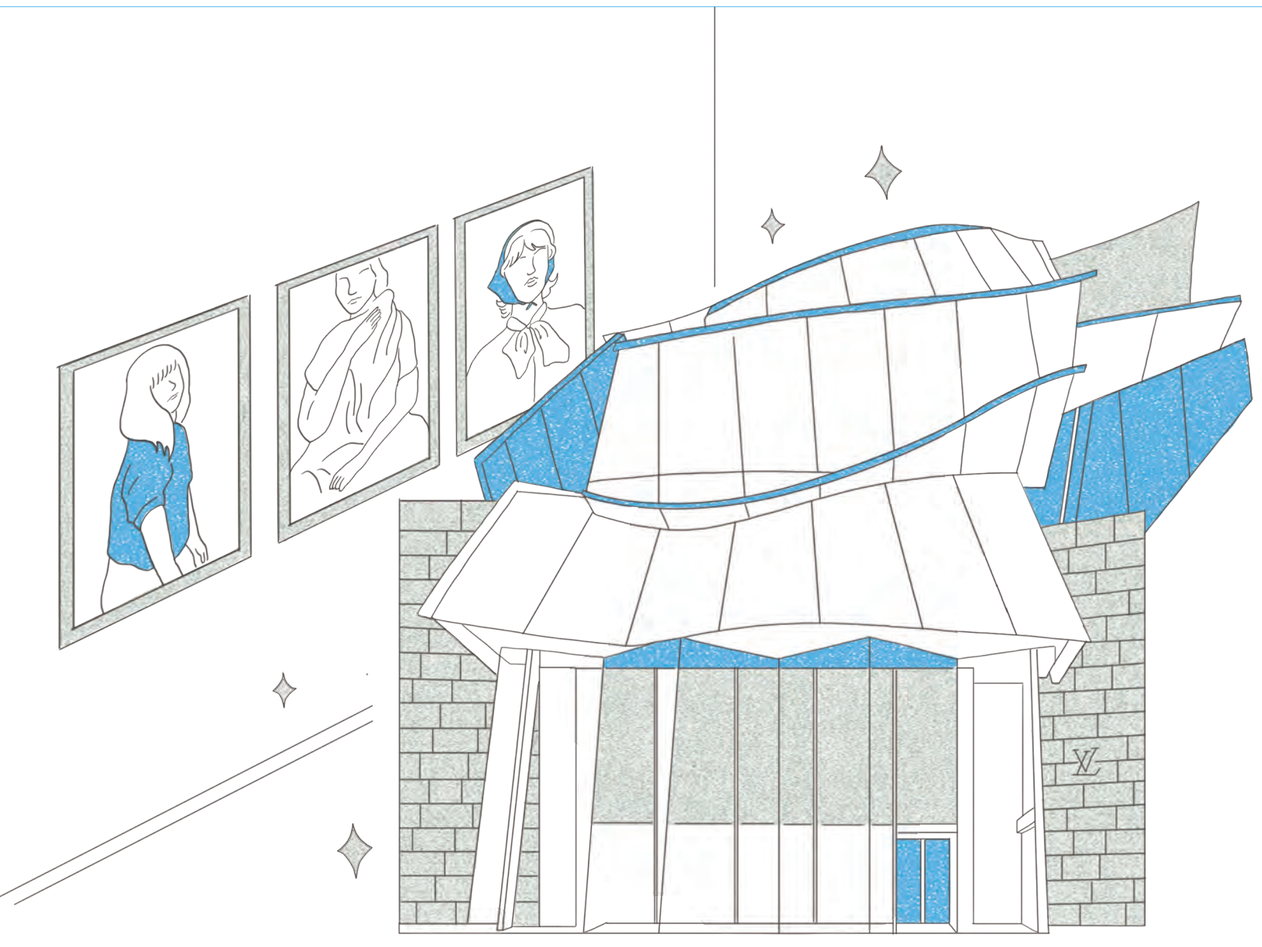
가족으로 상상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몇몇 연극학자들의 비판에 밀러는 ‘인종적 특수성은 한계’가 될 뿐이라고 응수했다는 것. 결국 밀러는 백인의 이야기만이 ‘세일즈’ 가능한 ‘평범한 미국인’의 보편적 서사를 구성한다고 진단했던 셈이다. 폴란드계 유대인으로 반反유대주의와 홀로코스트에 대한 탐구를 지속했던 그조차 자기 자신은 ‘보편성’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의심했을지도 모른다는 역설. 작가가 자기 자신을 배제하며 써 내려간 이 서사를 정말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세일즈맨의 죽음』의 ‘보편성’은 이처럼 난처하다.

그러나 이야기의 보편성이 자명하지 않다고 해서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국 무대에서는 1963년 미국 남부 최초의 흑인 대학교인 클라크 칼리지Clark College의 공연을 시작으로 아프리카계 미국인 로먼 가족을 상상해왔으며, 2022년에는 비로소 브로드웨이 무대가 그 상상을 포용했다. 아시아계 미국인 창작자들 또한 『세일즈맨의 죽음』을 ‘백인의 고전’을 넘어 ‘미국인의 고전’으로 만드는 작업에 동참하여, 작년에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낭독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국내의 무대 또한 이러한 흐름을 함께해왔는데, 『세일즈맨의 죽음』은 1953년 동양극장 공연을 시작으로 수없이 재연되었지만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한국 소시민의 비극’으로 해석되고 수용되었다고 한다. 일례로, 1983년부터 6년 동안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에 가까운 관객을 동원한 극단 성좌의 공연에 대해 극작가 박조열은 “배우들의 연기가 미국인에 근접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한국인으로서의 풍김에 충실”하여 “서울의 어느 소시민 가정의 상황이 로먼 일가에 역투사된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쓴 바 있다.(『공간』, 1988.)

결국 『세일즈맨의 죽음』을 ‘보편화’한 것은 상상적 도약을 통해 로먼과 자기 자신 사이의 간극을 메워나간 배우들과 관객의 실천적 공감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극장의 풍광은 밀러가 시대에 묶여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보편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고전을 보편화해온 무대의 역사가 ‘우리’를 확장해온 것이다. 앞으로 도래할 무대는 또 어떤 몸들을 ‘보편적 이야기’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선보일지 알 수 없지만, 방향성만은 분명하다. ‘보통 사람’의 끊임없는 재발명. 그것이 인권의 역사이자, 고전의 무대화 역사이다.

보고 싶은 얼굴

박이현 노블레스 에디터



지금 바로 곁에 있는 스마트폰을 들어 인스타그램 앱을 구동해보자. 그리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 '#프로필'을 검색해 보기를. 추측건대 엄지손가락으로 스크롤을 내렸음에도, 비슷한 형식의 초상사진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이다. 그것은 대부분 원색을 배경으로 하는 증명사진이거나, 젊었을 때 아름다운 자태를 남긴다는 목적으로 찍은 보디 프로필이겠지. 아! 몇몇 사진은 일본 분위기를 연상케 하는 묘한 사진들일 테고. 문제는 호기심에 사진 몇 장을 보았더니, 알고리즘이 작동해 돋보기를 터치할 때마다 위와 비슷한 유형의 사진들이 나타난다는 것. 이들을 보다가 문득 '나도 이렇게 찍어야 하나?'라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MZ세대 소개팅에선 인스타그램 돋보기가 첫인상만큼이나 중요하다던데 난감하기 그지없다.

개인의 취향 영역이라 함부로 왈가왈부하지 않는 게 현명한 선택일 테다. 다만, 사진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천편일률적 사진 행위가 아쉬운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런데 최근 초상사진 트렌드와 결을 달리하는 사진 전시가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끈다. 김옥선 개인전《평평한 것들》(8월 13일까지 성곡미술관에서)과 윌리엄 클라인William Klein의《DEAR FOLKS》(9월 17일까지 뮤지엄한미 삼청에서), 신디 셔먼Cindy Sherman의《On Stage–Part II》(9월 17일까지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에서)가 바로 그것. 이들 전시가 간간하게 다가오는 건 사진작가가 타인을 찍든 자신이 프레임 속에 등장하든, 인물 표정에서 카메라에 담기는 찰나의 마음 상태가 읽히기 때문이리라. 다시 말해, 인간 본연의 모습을 탐구할 수 있다는 의미. 또 인물의 배경 역할을 하는 요소들은 시대상·사회상을 엿볼 수 있게 하며, 사진을 타산지석 삼아 진짜 나의 얼굴은 무엇인지 내면을 성찰할 수도 있다. 사진은 시대를 비추는 거울이라 하지 않았던가. 앞으로 소개하는 세 개의 전시를 통해 작금의 초상사진 문화를 반추해보는 것은 어떨까.

먼저,《평평한 것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주변부에 눈길을 주는 김옥선의 회고전 성격이 짙다. 전시는 국제결혼에 대한 사적인 이야기를 풀어낸 '해피투게더',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체성을 다룬 '함일의 배', 재독 간호 여성들의 삶을 담은 '베를린 초상', 대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기록한 '가오슝 포트레이트', 재일외국인의 얼굴을 보여주는 '신부들, 사라' 등 작가 생활 20여 년을 집대성했다. 김옥선의 초상사진은 정직하다. 일정한 헤드룸을 유지한 채 눈앞의 인물을 그리며, 결과물에 별다른 수정도 하지 않는다. 포즈 역시 평범해 편안하게 인물을 바라볼 수 있다. 더욱이 사진을 크게 프린트한 덕분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눈높이에서 내적 대화를 할 수 있다. 《평평한 것들》에서 김옥선은 성곡미술관의 넓은 공간에 사진들을 밀도 있게 연결했는데, 사진들의 응집력이 생긴 까닭인지 보는 이는 자연스레 개인을 넘어 사회를 돌아보게 된다.

다음으로, 윌리엄 클라인의《DEAR FOLKS》는 2022년 작가 별세 후 열리는 첫 번째 유고전이다. 흔히 윌리엄 클라인을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기억하지만, 기실 그는 사진뿐 아니라 디자인·영화·책·회화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드는 전방위 예술가였다. 윌리엄 클라인의 팔방미인다운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작품 130여 점과 자료 40여 점으로 구성된다. 그중 그의 상징인 '뉴욕' 시리즈를 볼 수 있는 섹션 3과 메가시티의 거리 풍경으로 이뤄진 섹션 4를 주목하고자 한다. 뉴욕 작업을 진행할 당시 클라인은 "사진의 영도, 가장 날것의 스냅숏을 찍기 위해 나는 스스로 민족지학자라 여기고, 마치 인류학자가 줄루족을 대하듯 뉴요커를 바라보았다"라고 말했다. 그래서일까. 현대 도시 사진에서 쉬이 볼 수 있는 누군가의 뒷모습과 캔디드candid(일종의 몰래카메라) 방식 대신, 실제 군중 안에서 정면 돌파를 시도해 그런지 사진에는 인생사 희로애락이 그대로 드러난다. 클라인은 로마·모스크바·도쿄 거리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김없이 찾아가 셔터를 눌렀다. 이곳에서 극도의 클로즈업으로 탄생한 사진들은 금방이라도 화면을 뚫고 나올 것처럼 생동감 넘치는 것이 특징. 인상적인 부분은 거리의 사진들이 뮤지엄한미의 긴 벽면에 테트리스 하듯 배치됐다는 것. 미술관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골목 사이사이를 누비며 순간을 포착했던 윌리엄 클라인에 동기화되는 착각에 빠진다.

마지막으로,《On Stage–Part II》에선 현대 초상사진의 아이콘 신디 셔먼의 자화상과 마주할 수 있다. 신디 셔먼은 작년 5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만 레이Man Ray의 〈Le Violon d'Ingres〉1924가 160억 원에 낙찰되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초상사진 기록을 가진 작가였다. (키키 드 몽파르나스Kiki de Montparnasse의 왼쪽 얼굴과 등·허리가 보이는 만 레이의 작품을 초상사진으로 볼 수 있는지 없는지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을 둘러싼 고정관념을 비판하는 〈Untitled #96〉1981과 〈Untitled #93〉1981의 가격이 모두 약 51억 원이라면 믿어지겠는가. 초상사진이 미술시장에서 큰 인기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대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시는 그의 이름을 미술계에 각인시킨, 영화와 TV 드라마 배우로 변신해 눈물을 흘리고 있는 〈Untitled Film Stills〉1977-80와 거장이 그린 초상화의 주제와 미장센을 패러디한 〈History Portraits〉1988-90, 스텔라 매카트니 남성복과 히치콕 영화의 금발 여배우를 연기한 자신의 사진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활용해 두 명의 인물과 두 개의 정체성을

표현한 〈Men〉2019-20 등을 선보이고 있다. 비록 에스파스 루이 비통 서울 전시 공간이 작은 탓에 10점만 감상할 수 있으나, 각 작품은 신디 셔먼의 예술 세계가 전환하는 지점들을 대표하기에 작가의 열렬한 팬이라면, 나아가 현대사진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On Stage-Part II》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더불어 사회적 정체성, 자아 재정립, 패션 등과 관련된 질문을 던지는 작업들은 우리를 옥죄는 고정관념을 타파하는 데 의의가 있으니 '여러 가면 뒤에 숨은 진정한 나는 누구인지' 고민하는 사람이라면 사진 하나하나를 곱씹어 보길 바란다.

가장 애틋했던 그 여름으로

김호경 『플레이리스트: 음악 듣는 몸』 저자

여름
플레이리스트

친구 몇 명과 후쿠오카 거리를 걷고 왔다. 조금은 급작스러운, 아주아주 오랜만의 여행이었다. 낮볕이 강하게 내리쬐더니 별안간 비가 한바탕 쏟아지고, 또다시 뜨겁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사흘간 여름의 한복판에 있었다. 일상에서의 여름이란, 어떻게든 버티어 떠나보내야 하는 두려운 존재이지만, 도시의 여름을 대책 없이 온몸으로 맞이하고 보니 뭐 그럴 일이었나, 싶었다. 낮게 내려온 잿빛 하늘과 먹구름을 받치고 선 오래된 일본식 건물들, 친구들이 흔들며 걷던 알록달록한 우산과 젖어버린 운동화를 대신한 슬리퍼가 내는 소리들. 아주 경쾌하고 낭만적인 풍경으로 나는 이 여름을 두고두고 떠올릴 것이다.

어쩌면 아이 같은 마음으로 여름을 사랑해볼 수도 있다. 두 번째 생일도 채 맞지 않은 작은 아이가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 할 때마다 실시간 일기 예보를 확인하며 모자나 우비 따위를 챙겨 들고는 집으로부터 그리 멀어지지 않으려 애를 쓰지만, 역시나 뭐 그럴 일이었을까. 젖은 몸을, 익은 얼굴을 영원히 되돌리지 못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여행에서 돌아오니 여름의 모든 순간을 멋지게 만끽하고 있는 아이가 보였다.

다른 계절보다 여름은, 일종의 공간감으로 다가온다. 여름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서서 그 계절이 들려주는 장면과 이야기를 통과해 다시 다른 계절로 빠져나가는 느낌이라고 할까. 나의 지난 어느 여름을 들려준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로 설명하는 일보다 어떤 장소나 감촉, 온도나 기분을 떠올리는 일이 더 쉽고 자연스럽다.

영화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을 많은 이가 궁극의 여름 영화로 여기며 좋아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할 것이다. 여름 한 계절, 이탈리아의 어느 별장, 그리고 엘리오와 올리버. 영화의 설정은 간단하지만, 영화의 팬들이 손꼽는 장면마다의 감정의 결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 엘리오의 두근거림을 따라 흐르던 피아노곡들, 욕조에 나란히 걸린 수영복 두 개의 색감, 자전거를 타고 달리며 나눈 대화에 따라붙던 여운, 입맞춤의 순간, 엘리오가 올리버를 기다리던 밤의 온도…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의 수록곡 'Mystery of Love'는 듣는 이들을 단숨에 어느 먼 곳으로 데리고 간다. 각자가 품은 가장 애틋한 어느 여름으로.

'Mystery of Love'와 비슷한 결의, 듣는 동안 몽글몽글한 마음 위로 어느 여름날을 지어 올릴 수 있는 곡들을 찾아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었다. 네 곡, 11분짜리 플레이리스트로 이 여름을 나는 기분이다.

첫 번째는 첼리스트 존 헨리 크로퍼드John-Henry Crawford가 연주하는 브라질 작곡가 에이토르 빌라 로부스Heitor Villa-Lobos의 초기작 페케나 모음곡Pequena Suite W064 중 다섯 번째 곡 'Melodia'다. 빌라 로부스가 파리에 머무르며 쓴 곡으로 알려진 이 곡은 대중적인, 아름답고 편안한 첼로 선율과 피아노 반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존 헨리 크로퍼드의 어둑한 듯 그윽한 음색이 강렬한 몰입을 이끈다. 기어코 감정적 동요를 일으키고야 마는 마법 같은 연주.

노르웨이 작곡가 그리그의 서정 소품집Lyric Pieces Op.71 중 두 번째 곡 'Summer Evening'은 이 마법 같은 순간에 조금 더 머물 수 있게 도와준다. 프랑스 인상주의를 떠올리게 하는 멜랑콜리한 분위기를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이 배어 나온다.(빌라 로부스는 브라질, 그리그는 노르웨이의 민족적 색채를 드러낸 작곡가로 유명하다.) 피아니스트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Leif Ove Andsnes는 감정에 도취하지 않는 순수하고 섬세한 연주를 들려주는데, 그 터치가 어쩐지 알 수 없는 무언가를 그리워하게 하는 노스탤지어를 불러일으킨다.

새뮤얼 바버Samuel Barber의 목관 5중주를 위한 '여름 음악Summer Evening' Op.31 중 3악장은 스트라빈스키가 그린 찬란한 여름의 풍경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전체 곡은 12분 길이로 '느리고 게으르게'라는 지시어로 시작해 다섯 개의 목관 악기가 주고받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쳐 보이는데, '활기차게, 더욱 빠르게'라는 지시어로 1분 20초간 짧게 흐르는 3악장만 떼어 들으면 명랑한 여름이 금세 선명해진다.

스트라빈스키가 1938년에 완성한 '덤버턴 오크스Dumbarton Oaks'라는 제목의 협주곡 1악장에는 푸르른 생명력이 감돈다. 제목인 덤버턴 오크스는 워싱턴 교외에 있는 국제적 회의가 열리던 한 저택의 이름으로, 이후에는 한 미국인 부부가 이곳을 사들여 연주회가 가능한 공간으로 꾸몄다고 한다. 이곳을 운영하던 이들이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규모의 작품을 스트라빈스키에게 의뢰했고, 이에 스트라빈스키는 바로크 시대 합주협주곡 형식에 생동감 넘치는 리드미컬한 현대적 작곡 기법을 새겨 넣었다. 악보 어디에도 여름을 떠올리게 할 만한 단서는 없지만, 나는 이 곡으로 여름의 한복판으로 간다. 다신 없을 것 같은 여름의 생기가, 맑음이, 거칠 것 없는 나아감이 나를 활기찬 그곳으로 데려간다.

이 계절은 뛰어든 자들에게만 어떠한 충족감을 선사한다. 후회 없는 사랑을 한 엘리오처럼, 매일 문을 열고 달려 나가는 나의 아이처럼. 매끈한 사운드에 음악가들이 새겨넣은 뜨거운 무언가를 헤집으며, 또 금세 떠나려는 여름을 붙잡아 본다.

함께 만들어갑니다 문화+서울

COMMENTS

'길일에 비는 안녕, 봉원사 영산재' 칼럼을 가장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종합예술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영산재 의식의 가치와 의미를 되짚어보는 글이었네요. 우리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할 문화유산이 아닐까 합니다.
정창재 님

QUIZ

이번 달 Focus에 등장하는 서울문화재단 사업은 총 몇 개일까요?
연재인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

EPILOGUE

본지 손정승 칼럼에서 "아직은 젊은 나이지만 점점 내 세계가 확고해짐을 느끼는 요즘. 나의 이 작은 세계에 좋은 창작물을 더 많이 들이고 싶다고 생각한다"가 특별히 와닿았다. 늘 경계해야 할 부분인 것도 같다. 갑툭 다짐이지만 나도 하루하루를 소중히 좋은 창작물로 채워가야겠다.
이주영 서울문화재단 홍보마케팅팀장

POSTSCRIPT

8월호의 마지막 글, 여름 플레이리스트를 읽고 난 후 스마트폰 사진 앱을 열어보니 귀신같이 '여름'을 키워드로 2,296장의 사진을 모아서 보여준다. 썸네일은 오래 전 태국에서 찍은 사진이다. 몇 년 사이 동남아 날씨처럼 변해버린 서울의 여름이 견디기 힘들지만 한 달 뒤면 더위도 습기도 조금은 사라져 있겠지.
전민정 편집위원

WITH COMPANION

이끼에 놀러온 노랑이~~
손민지 디자인이끼 아트디렉터

GET-TOGETHER

[문화+서울] 편집팀은 7월호 마감을 마치고 갬블러크루×고블린파티 〈얼쑤, 얼쓰〉 문화회식(!)을 다녀왔습니다. 들썩이는 무대 가운데서도 특히 재기발랄한 이경구 무용수의 대사가 인상깊었네요.
김태희 디자인이끼 에디터

주요 배포처
국립국악원 국립중앙도서관 금천예술공장 대학로예술극장 문래예술공장 북서울시립미술관 블루스퀘어 삼일로창고극장 상명아트센터 서교예술실험센터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거리예술창작센터 서울남산국악당 서울도서관 서울무용센터 서울문화재단(본관)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센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50플러스 남부/서부/중부캠퍼스 서울시 자치구 문화재단 및 문화원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연극센터 서울예술교육센터 서울장애예술창작센터 시민청 신당창작아케이드 아르코미술관 연희문학창작촌 중랑아트갤러리 청년예술청 KT&G 상상마당 외

[문화+서울]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지는 무가지로 발간되므로 별도로 구독 요청이 불가합니다. 주요 배포처에 방문하시면 비치된 잡지를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문화+서울]을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좋은 의견을 전해주신 분께는 [문화+서울]을 일 년간 보내드립니다.

2023
서울문화재단
law
Work
예술인
법률
Accounting
Counsel
상담
문의 예술청팀 02-758-2173, 2180 / counseling23@sfac.or.kr